이투데이

ECONOMY TODAY
2024년 7월 11일 목요일
etoday.co.kr

제3420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투자를 뚝딱!
깨비증권
KB증권

코스피(10일) 2867.99(+0.61P) ▲ 코스닥 858.55(-1.87P) ▼
환율(원·달러, 15시30분) 1384.70(+3.10원) ▲ 금리(국고채 3년물) 3.120%(+0.006%P) ▲

기업 40% "상반기 이자 내면 본전이거나 적자" 10

한화에어로, 루마니아와 'K9' 1.4兆 수출계약 12

폴더블폰·웨어러블 기기까지… '갤럭시 AI' 초확장

삼성, 파리서 '갤럭시 언팩'

Z폴드6, 전작보다 무게·두께 줄여
Z플립6, 배터리 용량 300mAh↑
폴더블폰 'AI 통역' 업그레이드
수면 등 건강관리 '갤럭시 링' 첫선

삼성전자가 올림픽을앞둔 프랑스파리에서 '6세대 폴더블폰'을 비롯해 '갤럭시 링' 등 웨어러블 제품까지 총 7종의 신제품을 공개했다. '갤럭시 Z폴드6'와 '갤럭시 Z플립6'는 갤럭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최초의 폴더블폰이다. 출시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갤럭시 링'은 건강관리에 최적화된 반지 형태 웨어러블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10일(현지시간) 프랑스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2024' 행사를 개최하고 갤럭시 Z폴드6와 갤럭시 Z플립6, 갤럭시 버즈3 프로, 갤럭시 버즈3, 갤럭시 워치7, 갤럭시 워치 울트라, 갤럭시 링 등을 선보였다. ▶관련기사 4면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은 "삼성전자는 2019년 처음 폴더블 제품을 출시한 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폴더블 시장을 선도해 왔다"며 "새롭게 출시되는 갤럭시 Z폴드6와 갤럭시 Z플립6는 궁극의 성능과 완성도를 자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층 더 발전한 갤럭시 AI와 최적화된 폴더블 폼팩터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초 '갤럭시 S24'를 통해 갤럭시 AI를 처음 선보인 삼성전자는 이번 언팩을 통해 스마트폰에서만 이용하던 AI 기능을 웨어러블 기기까지 확대했다. 최초의 AI 폴더블폰 공개와 함께 갤럭시 시리즈를 아우르는 'AI 시스템'을 갖추게 된 셈이다.

갤럭시 Z플립6와 갤럭시 Z폴드6는 더 가볍고 얇아졌다. 특히 갤럭시 Z폴드6는 전작과 비교했을 때 무게와 두께가 각각 14g, 1.3㎜나 줄어 휴대성이 더욱 좋아졌다. 갤럭시 S24 울트라의 무게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다.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는 불만이 컸던 갤럭시 Z플립의 경우 이번 배터리 용량은 300mAh 늘어난 4000mAh에 달한다.

갤럭시 Z플립6·Z폴드6에는 퀄컴의 '갤럭시용 스냅드래곤8 3세대 모바일 플랫폼'이 탑재됐다. 이 칩세트는 고성능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결합해 AI 프로세싱을 최적화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폴더블폰에 'AI 통역'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폴더블의 듀얼 스크린을 활용하는 새로운 '대화 모드'로 보다 원활한 소통을 지원한다. 외국어 강의를 들을 때 '듣기 모드'를 사용하면 번역된 결과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기된다.

AI 기반의 '자동 줌' 기능도 눈에 띈다. 피사체를 인식해 최적의 사진 구도를 완성해주는 기능이다. 여러 인물을 촬영할 때 너무 작게 나오거나 잘리지 않도록 자동으로 줌을 조정해준다.

삼성전자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아래 카루젤 뒤 루브르 쇼핑센터에서 '갤럭시 언팩 2024'를 열고 갤럭시 링(왼쪽부터)과 갤럭시 워치7,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공개했다. 본지 기자가 직접 낀 '갤럭시 링' 반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작은 사진). 사진제공 삼성전자

두 제품은 24일(한국시간)부터 전 세계에 출시된다. 국내 사전 판매는 12일부터 18일까지다. 갤럭시 Z폴드6는 256GB, 512GB, 1TB 모델로 출시되며 가격은 각각 222만9700원, 238만8100원, 270만4900원이다. 갤럭시 Z플립6는 256GB, 512GB로 출시되고 가격은 각각 148만5000원, 164만3400원이다.

이날 함께 공개한 갤럭시 링은 삼성전자의 가장 작은 초소형 폼팩터(제품 외형)로 불린다. 수면 중 편안하게 주요 건강 지표를 추적하고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파리=글·사진 이수진 기자 abc123@

'수업거부' 의대생, 내년 2월까지 유급 유예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일부과목 F학점 받아도 한시 특례
3학기제·미완학점제도 도입 가능

정부가 올해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의대생들은 F학점을 받아도 한시적으로 유급을 피할 수 있다. 1학기에 듣지 않은 수업은 2학기까지 듣고 내년 2월 말에 성적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다. ▶관련기사 5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강제·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각 대학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선택하면 된다.

의대는 올해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바뀐다. 의대생들은 1학기에 수업을 듣지 못했어도 2학기까지 야간·원격·주말 수업 등을 듣고 2학기 말(내년 2월)에 성적을 받을 수 있다.

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눠 올해 총 3학기를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경우 3학기 등록금은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의대생들은 일부 과목에서 F학점을 받아도 한시적 특례 조치로 유급을 피할 수 있다. F학점을 받은 과목은 학년 말까지 다시 이수한다. 유급 판단 시점은 학기 말에서 학년 말로 늦춘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미완(I)학점 제도' 도입도 가능하다.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과목은 일단 미완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각 대학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 수업해야 한다. 대학은 30주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2주 이내 범위에서 수업을 감축할 수 있다. 매 학년도 28주만 수업해도 되는 것이다.

의예과 1학년은 일부 과목에서 F학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고, 2학기나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의대 본과 4학년은 올해 2학기에 실습수업을 최대한 보충한다. 2학기 보충이 어려우면 계절학기에 실습한다. 2025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한다.

현재 전국 의대는 수업을 재개했지만, 학교로 돌아온 의대생은 거의 없다. 정부는 대학에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를 설치해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상담할 계획이다.

손현경 기자 son89@

'영끌족'이 끌어올린 가계대출… 3개월 연속 '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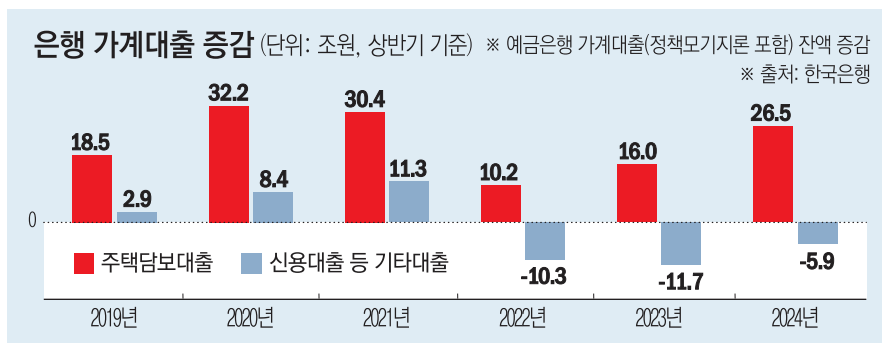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4.4兆 증가
정책대출 영향 은행 주담대 6.3兆↑
"전세대출 DSR 등 조기시행 필요"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 6조 원 증가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수요가 쏠리면서 가계대출 잔액도 3개월 연속 늘었다. 정부는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부동산 시장과 향후 금리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험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4년 6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5월보다 4조4000억 원 늘었다. 5월 증가 폭(5조3000억 원) 대비 다소 축소됐으나 석 달 연속 확대 추세는 이어졌다. ▶관련기사 2·3·18면

가계대출은 주담대가 끌어올렸다. 지난달 6조 원으로 올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증가 폭을 기록한 주담대는 올해 상반기(1~6월) 총 26조5000억 원이나 불어났다.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 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증가 규모다.

특히 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됐는데 지난달에만 은행에서 6조3000억 원의 주담대가 나갔다.



금융당국은 주택거래 회복세를 보이면서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국주택거래량은 지난해 12월 3만8000가구까지 줄었다가 올해 △1월 4만3000가구 △2월 4만3000가구 △3월 5만3000가구 △4월 5만8000가구 △5월 5만7000가구 등으로 회복세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격이 15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까지 갈아치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에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대비로는 상반기(1~6월) 동안 가계대출이 총 7조9000억 원(0.5%) 증가하는 등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너무 가파르다고 우려한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면 계속 집값이 오르면서 관련 대출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계대출 연체율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시행이 안 되다 보니 대출 수요 억제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책은 시기를 앞당겨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영끌 수요에 주담대 폭주… '갈지자 정책'이 폭탄 키워

상반기 26.5兆 3년 만에 최대폭

6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 1115.5兆
주담대 876.9兆 달하며 올해 최대
부동산 경기 회복에 주택거래 늘어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 '엇박자'
금융당국·은행 범정부 대책 마련을

올해 상반기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27조 원 가까이 불어나며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 데다 주담대 금리까지 하락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면서도 시장에는 '집을 사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낸 정부와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빠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도한 가계 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15조5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6조 원 증가했다. 특히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담대 잔액이 876조9000억 원으로 전월 말보다 6조3000억 원 늘어, 올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4월부터 증가한 주담대는 상반기(1~6월)에만 총 26조5000억 원 급증했다.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 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 규모다.

한은은 최근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면서 주택 거래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영향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가계대출이 걱정된다면서도 디딤돌(주택 구입), 버팀목(전세) 등 정책성 대출 공급을 확대한 탓이라는 것이다.

특히 시행을 코앞에 두고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갑작스럽게 연기하는 등 일관성 없는 대책 발표가 시장에 '빚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신호를 줬다고 지적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현재 가계대출 잔액(9일 기준)은 709조751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6월 말(708조5723억 원)과 비교해 1조1795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또 애꿎은 은행만 잡고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5대 은행 개인여신 담당 부장을 소집해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가계대출 동향과 관련해 실무자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현재 은행들의 가계대출 상황도 점검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도 들어간다.

은행들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당장 국민은행은 11일부터 대면·비대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2%포인트(p) 올리기로 결정했다. 국민은행은 일주일 전 가계부동산담보대출가산금리를 0.13%p 올린 바 있다. 신한은행도 15일부터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모든 대출 상품의 금리를 0.05%p 높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문제 해결이 늦어질 경우 한국 경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대출 증가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내수경기 부진으로 경제 상황이 가뜩이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대출로 인해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경우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연체율 상승에… 대출 문턱 높인 제2금융권

신용점수 600점 이하 상품 '반토막'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 당분간 지속

은행권 가계대출이 불어나는 동안 서민금융대출 창구인 저축은행과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탓이다.

1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신용평점 600점 이하 저신용자에게 가계신용대출을 내준 저축은행은 11곳으로, 직전 달 14곳보다 3곳이 줄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곳에서 절반가량으로 반토막 났다.

대출상품 수로 보면 감소 폭은 더 컸다. 5월 기준 신용평점이 600점 이하인 저신용자에게 나간 가계신용대출 상품은 14개로, 1년 새 34개에서 절반 넘게 줄었다.

반대로 신용평점 900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나간 대출은 53개에서 65개로 12개 늘었다.

상호금융권도 가계신용대출 문을 좁히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전체 대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월 42.8%에서 올해 4월 39.6%로 줄어들었다.

서민금융기관들이 신용대출 문턱을 높인 것은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리스크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올 1분기 말 기준 8.8%로 작년말(6.55%)보다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5.25%로 전년 말 5.01%보다 0.24%포인트(p) 뛰었다. 금융감독원 발표 기준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2.97%로 전년 말 1.52% 대비 1.45%p 상승했다.

한은은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보고서에서 "2분기 중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대체로 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신용자 대상 대출 문이 좁아지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다. 저축은행업권 관계자는 "2분기에는 연체율 상승 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건전성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대출 영업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대출) 심사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 등 전반적인 경기 지표가 활성화돼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모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하영 기자 haha@

〈국토교통부 장관〉

업무보고 나선 박상우 "전셋값 급등, 임대차법 영향 커"

국회 국토교통위 출석

"재초환, 사업자에게 부담 떠넘겨"

"종부세, 징벌적 과세 성격 강해"

재초환·종부세 모두 '폐지' 의견

"노후도시 재정비로 충분한 공급"

'전세피해 구제' 정부안 금주 발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첫 업무보고에 출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강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폐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 급등에 대해선 임대차법이 상승 폭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10일 박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이처럼 밝혔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재초환과 종부세 등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 법안 폐지를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비용 부담으로 재건축 사업이 멈춘 곳이 많다. 재초환은 불합리한 규제 아니냐"고 묻자 박 장관은 "재초환은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사업자에) 부담을 지운 것이다. 맞지 않는 옷이다"라며 "당연히 폐지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종부세는 부동산 수요와 공급량 조절 목적이 아닌 징벌적 과세 측면에서 도입됐으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아파트 수요 증가와 함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꼽았다. 박 장관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전셋값 급등 지적에 대해 "빌라에 전세 살던 분들이 아파트 쪽으로 많이 옮겨왔고, 또 논란이 있겠지만 임대차법 시행으로 올해 4년째를 맞아 진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야당은 수년째 지속 중인 전세사기 관련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월세신고제 처벌 유예가 2021년 이후 4년째 유예됐는데 준비

박상우(맨 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전월세신고제는 시행 중이지만 처벌을 유예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세입자 간 균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답했다.

질의응답에 앞서 국토부는 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 후 회수' 안을 대체할 정부 대안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이번 주 안으로 (정부 대안) 발의가 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대안과 야당 안 시행을 위한 재정추계도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을 통해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를 보전하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한 박 장관은 GTX 사업에 관해 "GTX A노선을 시작으로 나머지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사업인 철도 지하화 사업과 건설업계 해외 수주 '400억 달러' 목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하고, 글로벌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민·관이 원팀이 돼 '2024년 400억 달러 규모 해외건설 수주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경제부총리〉

최상목 "부동산 시장 변동성 커져 필요시 주택 추가 공급방안 강구"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침도 밝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추가 공급 방안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가계부채를 하향 안정화하는 관리 기조도 확고히 유지한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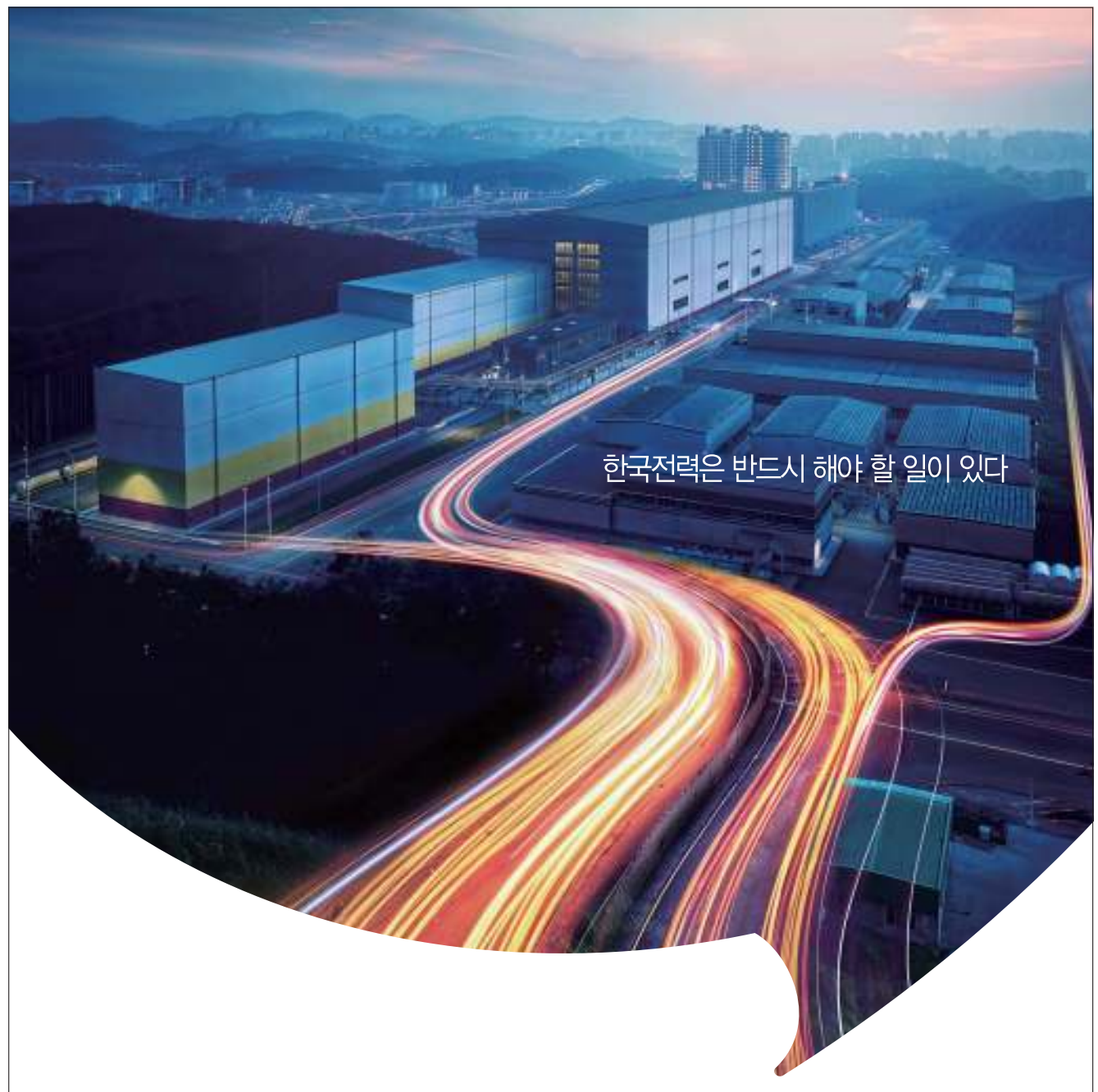
이날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 대해서는 "폭염 등 일시적 요인이 취업자 증가를 일부 제약한 가운데 건설업 고용 감소 폭 확대, 자영업자 감소 지속 등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 신용보증재단 전환 보증을 이달 신설한다. 다음 달에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며 "조달기업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기존 대비 20% 이상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기 기업이 실적 부족으로 계약심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평가기준 완화를 업력 5년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무게 2g에 센서·배터리… 24시간 건강관리 '마법의 반지'

'갤럭시 링' 직접 껴보니…

센서 통해 '수면 패턴' 분석
한번 충전으로 일주일 사용
겉면 오목하고 내부엔 돌기
'사이즈 키트'로 측정 뒤 주문
워치 함께 쓰면 데이터 정확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이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신제품 '갤럭시 Z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6'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새로운 헬스케어 전문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링'을 공개했다. 무게가 2g밖에 되지 않는 이 제품은 수면 기록 등 정보를 토대로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돕는다.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아래 카루젤 뒤 루브르(Carrousel du Louvre) 쇼핑센터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4'에서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링을 체험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링과 갤럭시 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통한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꿈꾸고 있다. 갤럭시 링은 수면 기록 등 갤럭시 워치와 비슷한 기능을 가졌지만, 24시간 착용 가능하며 최장 일주일까지도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재진의 이목을 끌었다.

외관은 단순한 반지 모습이다. 겉면이 살짝 오목하게 들어갔고, 조금 도톰한 디자인이다. 일반적인 반지 크기에 비해 큰 편이지만 익숙해지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는 건강 상태 측정을 위한 작은 돌기들이 있는데, 손가락에 꼈을 때 거슬리지 않는 정도였다.

색상은 티타늄 블랙, 티타늄 실버, 티타늄 골드 3가지다. 사이즈는 총 9가지다.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삼성닷컴에서 '사이즈 키트'를 받아보고 맞는 사이즈를 파악한 뒤 주문하는 것이 좋다. 갤럭시 링의 사이즈가 애매하면 굵기가 다른 손가락에 끼울 수도 있다.

무게는 2g으로 매우 가벼웠다. 이 작은 링에 센서와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현장을 방문한 몇몇 현지인들은 갤럭시 링에 들어가는 자그마한 센서에 자신의 손가락을 대보더니 "이렇게 작은 장치에 어떻게 이런 기술이 들어갈 수 있나"라며 놀라워했다.

갤럭시 링 전용 충전 케이스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투명 충전 케이스에 반지를 꽂으면 하얀빛의 원형 발광다이오드(LED) 라이트가 들어오며 연결 상태를 알려주고 충전을 시작한다. 갤럭시 링은 제스처에 따라 기능을 달리했다. 엄지와 검지를 두 번 맞대는 '더블 핀치' 제스처를 취하면 연결된 갤럭시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다. 원거리를 촬영할 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작고 가볍지만 분실 우려는 거의 없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삼성 파인드'와 연동해 분실 시 쉽게 찾을 수 있다. 알람이나 진동이 울리는 것은 아니지만, 링의 센서가 발광하며 위치를 알린다.

갤럭시 링이 워치와 다른 점은 24시간 착용, 건강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갤럭시 링은 센서를 통해 수면 패턴을 분석해 준다. △실제 수면 시간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 △수면 중 움직임 △심박수 △수면 중 호흡수 등의 지표를 체크해 준다.

링의 핵심 부품은 센서 역할을 하는 '바이오액티브센서'다. 그 안에 자외선(UV) LED가 광반사 방식으로 피부의 당화산물량을 측정한다. 워치와 링을 함께 사용하면 더욱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사용 시간도 더 길어지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워치가 데이터 측정을 시작하면 링은 워치의 활동을 인지하고 절전 기능에 들어가 배터리를 절약한다.

갤럭시 워치 울트라도 건강관리 기능을 위해 '최종당화산물(AGEs: 당독소)' 지표를 제공한다. 최종당화산물은 사용자의 생물학적 노화 과정을 반영하는 건강 지표 중 하나로, 퇴행성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연관성이 높은 건강 지표로 알려져 있다.

최종당화산물은 혈당과는 다르다. 중장기적으로 당이 오랫동안 누적됐을 때 피부 등에서 나오는 수치로 알려졌다. 당뇨와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당뇨 질환 예방 차원에서 생활습관을 점검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파리=이수진 기자 abc123@

Z플립·폴드6, 힌지 주름 개선… 발열 걱정도 없다

갤럭시 Z플립·폴드6 공개

힌지 새 소재 사용 더 얇아져
쿨링 시스템 도입, 방열 관리
AI 통역기능 한층 업그레이드

이번에 공개된 폴더블폰 '갤럭시 Z플립6'와 '갤럭시 Z폴드6'는 삼성전자의 야심작으로 평가된다.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 주름과 방열 문제 등 기존 폴더블폰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대폭 개선해 시장에 내놓았다. 게다가 인공지능(AI) 기능이 추가·확대돼 장벽 없는 소통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아래 카루젤 뒤 루브르(Carrousel du Louvre) 쇼핑센터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4'에서 한층 개선된 모습의 갤럭시 Z플립6와 갤럭시 Z폴드6를 체험해볼 수 있었다. 두 제품은 지난해 출시된 전작과 비교해 확실히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뀌었다. 두께는 얇아졌고 무게는 가벼워졌다. 모서리는 곡선형이 아닌 직선형으로 바뀌어 더욱 날렵한 모습이다. 우선, '힌지(경첩)' 부분에서 생기는 디스플레이 주름이 확실히 개선됐다. 분해된 제품의 힌지 부품을 직접 손가락으로 만져 봤다. 기존 제품과 이번 제품에서 힌지 부품 두께는 물론 평평함 자체부터 달랐다. 훨씬 얇아지고 매끄러워졌다.

주름이 덜 보이게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유리층도 더 얇게 만들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 소재도 채용했다. 여기에 들어간 STF(Sheer Thickening Fluid)는 스크린 변형에도 저항력이 강하다. 덕분에 액정을 펼쳤을 때도 주름이 잘 보이지 않는다.

갤럭시 Z플립 시리즈는 제품을 오래 사용하면 기기에서 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번 제품은 달랐다. 제품 체험을 위해 한참 동안 손에 쥐고 있었는데도 뜨끈해지는 현상이 없었다. 방열을 관리하는 '베이퍼 챔버'가 그 비결이다. 일종의 '쿨링 시스템'으로 방열에 도움을 준 것이다. 갤럭시 Z폴드6에는 기존의 방열판을 60% 늘렸고, 갤럭시 Z플립6는 기존에 없던 방열판을 새롭게 추가했다.

갤럭시 AI의 통역 기능은 이번 신제품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갤럭시S 24에 대화모드가 제공됐다면 갤럭시 Z플립6와 갤럭시 Z폴드6에는 듣기모드도 추가됐다. 특히 제품을 90도로 접어 '플렉스 모드'로 만들면 자연스러운 통역이 가능하다.

갤럭시 Z폴드6를 두고 우리말로 "반갑습니다"라고 말하자 커버 창에서 "Hello, Nice to meet you"라고 번역됐다. 다시 영어로 "How was your day?"라고 말하자 이번에는 메인 창에 "오늘은 어떻게 지냈나요?"라고 한국말로 번역됐다.

Z플립 시리즈는 디자인과 사용성에 호평을 받으면서도 카메라 성능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갤럭시 Z플립6의 카메라 성능은 한껏 개선됐다. 12메가픽셀(MP)이었던 Z플립5의 카메라 해상도는 이번에 50MP로 개선됐다. 갤럭시 S24에 맞먹는 수준이다.

삼성전자가 새롭게 선보인 갤럭시 버즈3 프로는 디자인이 파격적으로 변했다. 기존 강낭콩 디자인에서 조작부인 '블레이드'를 직선으로 만들었다. 갤럭시 AI 기능도 추가됐다. 실시간 음성 통역 기능이 대표적이다. 통역 애플리케이션(앱)의 '듣기 모드'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언어가 실시간으로 음성 통역된다.

파리=이수진 기자 abc123@

갤럭시Z플립6·갤럭시Z폴드6 세부 사양

갤럭시Z플립6	SAMSUNG	갤럭시Z폴드6
6.7형	메인디스플레이	7.6형
3.4형	커버디스플레이	6.3형
187g	무게	239g
카메라 2개 각각 1200만, 5000만화소	후면 카메라	카메라 3개 각각 1200만, 5000만, 1000만화소
1000만화소	커버 카메라	1000만화소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Gen 3	AP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Gen 3
4000mAh	배터리	4400mAh

갤Z플립6, 파리 올림픽 에디션 선봬

참가선수 1.7만명 전원에 제공
케이스, 명품 '벨루티'와 협업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공식 파트너사인 삼성전자가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 참가 선수단을 위해 특별 제작한 '갤럭시 Z플립6 올림픽 에디션<사진>'을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1만7000여 명의 파리 올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 '갤럭시 Z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각국에서 모인 선수들이 언어의 장벽 없이 소통하고 전 세계 팬들에게 올림픽의 감동을 생생하게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올림픽 에디션은 얇고 날렵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갤럭시 Z플립6'의 옐로 색상에 금빛 올림픽·패럴림픽 엠블럼과 삼성 로고가 새겨진 특별한 디자인을 자랑한다.

함께 제공되는 전용 플립수트 케이스는 프랑스 국가대표팀의 개막식 의상을 디자인한 루이비통 모에헤네시(LVMH) 그룹 럭셔리 남성복 브랜드 벨루티(Berluti)와의 협업으로 완성됐다. 벨루티만의 가죽 염색 기술인 파티나(Patina) 기법과 올림픽 오륜기에서 영감을 받은 색 조합을 추가한 디자인으로 올림픽 정신과 화합의 가치를 표현했다.

최승은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 마케팅팀장(부사장)은 "2024 파리 올림픽 선수들에게 신제품 '갤럭시 Z플립6'를 가장 먼저 선보일 수 있어 영광"이라며 "선수들이 갤럭시 인공지능(AI)으로 올림픽 현장의 감동을 전 세계 팬들과 생생하게 공유해 이전에 없던 색다른 올림픽 경험이 널리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갤럭시 Z플립6 올림픽 에디션'은 올림픽 에디션 최초로 갤럭시 AI가 탑재됐다. 각국 선수들은 폴더블의 듀얼 스크린을 활용한 통역이나 통화 중 실시간 음성 통역 기능으로 언어의 장벽 없이 소통할 수 있다. '인스턴트 슬로모션'이나 '포토 어시스트'를 활용해 경기 준비과정과 올림픽 현지 분위기를 더 재미있게 촬영하고 팬들과 공유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올림픽 파트너사와 협력해 선수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과 서비스도 제공한다. 파리 올림픽 공식 이동통신 파트너사 '오렌지'와 협업해 5G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100GB 용량의 이심(eSIM)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한 2년간의 국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수들이 올림픽 이후 자국으로 돌아가서도 올림픽 에디션 기기를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파리=이수진 기자 abc123@

“학폭 개념부터 재정의 필요… 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❹·〈끝〉

‘학폭근절’ 법조계 의견은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신체·언어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의 괴롭힘, 연인 간의 스토킹 등 그 양태도 다양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전한 피해자 회복과 가해자 교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 이를 위해서라도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의하고 ‘진짜 학폭’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능사 아닌 학폭위… 피해자 회복에 중점 둬야”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린다.

문제는 학폭위가 열리고 가해자가 처분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되레 피해 학생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인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대표변호사는 “불이익이 많아질수록 가해자 측에서는 학폭 사건을 부인하려고 하고 더 분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며 “피해자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받고 싶었던 것이지만, 분쟁이 길어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학폭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학폭위 절차를 거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처럼 학교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학부모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학폭위에 따른 징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이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대표변호사

“불이익 많아질수록 분쟁 길어져 피해자들 오히려 상처 더 받아”

◇“가해자 교화 필요… 중요한 학폭 사건 가려내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는 피해 학생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판사 출신인 신혜성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피해자 회복도 중요하지만 가해 학생 교화에도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학폭위 자체가 드라마 ‘더글로리’ 같은 심각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피해자 보호 쪽에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과를 받고 끝낼 만한 일도 학폭 신고가 들어가면 문제를 해결할 기회 자체가 박탈되기도 한다”며 “진짜 학폭 피해자와 진짜 학폭 사건을 가려내지 못하는 것이 현재 제도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너무 많은 사건이 학폭이 되다 보니 오히려 학폭위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혜성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

“학폭위, 큰 사건 위해 만들어져 오히려 제도 의미 퇴색되기도”

◇“학폭 정의 재검토 필요… 회복·교화 같이 이뤄져야”

소년·학교폭력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자격을 보유한 신혜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피해자 회복과 가해자 교화 모두 중요하지만, 둘 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혜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현재 사소한 과실도 학폭 처리 美 사례 참고해 시스템 바꿔야”

신 부장검사는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지난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처분이 중해서 불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해 학생이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경우 이뤄지는 조치인 서면사과에 대한 불복률도 높다.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 부장검사는 현재 모호한 학교폭력 정의를 재검토하고, 피해 정도와 그에 따른 처분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학폭 정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너무 포괄적”이라며 “경미한 행위, 사소한 과실도 학폭으로 신고받아 처리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 미국 등에서는 경미한 괴롭힘이 아닌 학교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정도의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괴롭힘 등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아현 기자 cahyun@ ·정유정 기자 oiljung@

〈사회부총리〉

이주호 “유급 방지책은 특혜 아닌 공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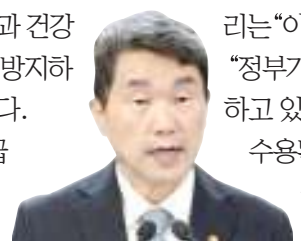
의대 학사운영 방침 발표

교육부가 의과대학 성적 및 유급 처리를 미루고 다학기제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은 의대생 집단유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주호〈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한 학사운영 지침을 발표한 뒤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권고 사항으로 각 대학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선택하면 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는 조처로 이들이 돌아오면 등록금 추가 납부 없이 무료로 보충 학기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1학기를 보충하는 성격의 2학기나 보충 학기에 참여하는 의대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부총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생 개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자 추진하는 조치가 아니다”라며 “의료인력 수급 차질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예과 1학년의 경우 진급시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방향이다. 일부 과목에 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현행 학칙상으론 대부분 의대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그런데도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대량 유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교육부는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 계획도 준비하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와 관련해 “수강 신청 우선권을 내년도 신입생에게 주는 등 여러 가지 학습권 보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올해(수업 거부 사태)와 무관한 내년 신입생들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재차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 여러분께 절박한 심정으로 간곡하게 요청한다”며 “이제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비한 내년도 신입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우려에 이 부총리는 “이제는 정말 돌아와야 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이제 요구사항들이 많이 수용된 만큼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기후위기 초당 대응”… 의장이 앞장 선 ‘기후특위 상설화’

〈우원식 국회의장〉

21대 국회선 단 6회 회의 그쳐
국회법 개정에 여야 공감대
기후기금 등 예산 심사권 주목

국회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입법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특위 설치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미 21대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전례를 가지고 있다. 당시 특위는 기존 상임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한시적 기구로 여겨져 회의는 여섯 차례밖에 열리지 못했고, 법안과 예산에 대한 심의 권한 부재로 실질적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22대 국회에선 야권을 중심으로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입법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특위 상설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후특위를 설치하도록 했고, 상설 위원회로 격상하기 위해 별도의 활동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특위에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부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기후특위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탄소중립기본법, 신재생에너지법, 배출권거래법 등 기후·에너지 관련 법률안을 기후특위가 심사·처리하도록 하고, 기후대응기금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의 예·결산안을 예비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사권 부여는 기후특위 역할 강화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지난해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국회 패싱’ 논란이 일면서다. 지난해 4월 특위는 회의를 열고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특위 위원들의 반발을 샀다. 특히 ‘기후위기대응기금’에 대한 예산 심사권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기금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 촉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2021년 처음 만들어져 매년 2조~2조5000억 원 사이로 편성되고 있다.

올해 기후대응기금 총액은 2조3918억 원으로, 지난해 2조4867억 원에서 949억 원 삭감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240억 원이 삭감되면서 보다 전문성을 갖춘 특위에서 예·결산 예비 심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직접 ‘상설 특위’ 설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우 의장은 전날 기후 문제를 주로 다루는 여야 의원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특위 설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김소희·김용태(국민의힘)·이소영·박지혜(민주당)·서왕진(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자리했다.

우 의장은 “조속히 상설 기후특위를 설치하자”며 “국회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의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은 22대 국회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설명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기후특위 상설화를 공통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총선 직후인 5월엔 8개 원내정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상설 기후특위 설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여야 구분 없이 공감대를 이룬 사안인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한반도 유사시 美 증원 전력의 중심”
尹, 인태사령부서 북·러 밀착 경고장

29년 만의 한국 대통령 방문
“인태사, 한미동맹의 대들보…
자유·민주주의 수호 연대 필수”

‘안보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인태사)를 찾아 “인태사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대들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결속을 과시하는 동시에 북러의 군사 협력은 비판하면서 사실상 북러의 밀착외교에 경고장을 던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인태사에서 사무엘 파파로 사령관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해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가 긴요하며 이를 위한 인태사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인태사를 방문한 것은 29년 만으로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1981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 1995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다. 특히 태평양사령부가 2018년 인태사로 개편된 이후 방문한 우리나라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파파로 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한 뒤 한반도 및 역내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한 점 등을 비판하며 “이러한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고한 공약과 협력에 토대를 둔 강력한 능력이야말로, 규범에 기반한 역내 질서를 굳건하게 수호하는 원동력이고, 그 근간에 인태사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파파로 사령관의 지휘 지침이 ‘압도적 승리(Prevail)!’라고 알고 있다. 인태사가 늘 전장을 지배하고 승리하는 사령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태사 방문이 한국과 미국의 결속을 과시하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0일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본격적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들어간다. 나토 회원국과의 릴레이 양자 회담,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 나토 정상회의 본회의 일정 등을 앞두고 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尹, 미국 인태사령관에 보국훈장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캠프 H. M. 스미스의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태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먹고사는 ‘먹사니즘’ 해결”… 대표 연임 도전

종부세·금투세 방향 전환 예고
정치권선 “대선 출마선언” 평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당 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고민’을 언급하며 방향전환을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먹고사는 일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가 파탄 났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무엇을 위한 사회냐.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이렇게 되면 “이른바 ‘완전고용 사회’는 옛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했다. ‘기본사회’는 이 전 대표의 대선 공약으로, 1월 당대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약속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그는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시스템을 제대로 갖춰가야 한다”며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에너지 고속도로’, 즉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에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운영 방식보다는 국가 미래 비전에 초점을 두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견이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총선 압승을 발판 삼아 제1야당인 민주당이 ‘확실한 대안’이자 ‘수권정당’이라는 면모를 부각해 대권 가도를 굳히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중도 확장’을 노린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 후 질의응답에서 종부세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민주당표 세금’으로 통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해서도 “(도입) 시기 문제에 있어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민주당 “검찰청 폐지 이달 당론 발의”

검찰개혁TF 공청회

수사 중수처, 기소 공소청 분할
“고의로 수사·기소 안하면 처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넘어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열린 공청회에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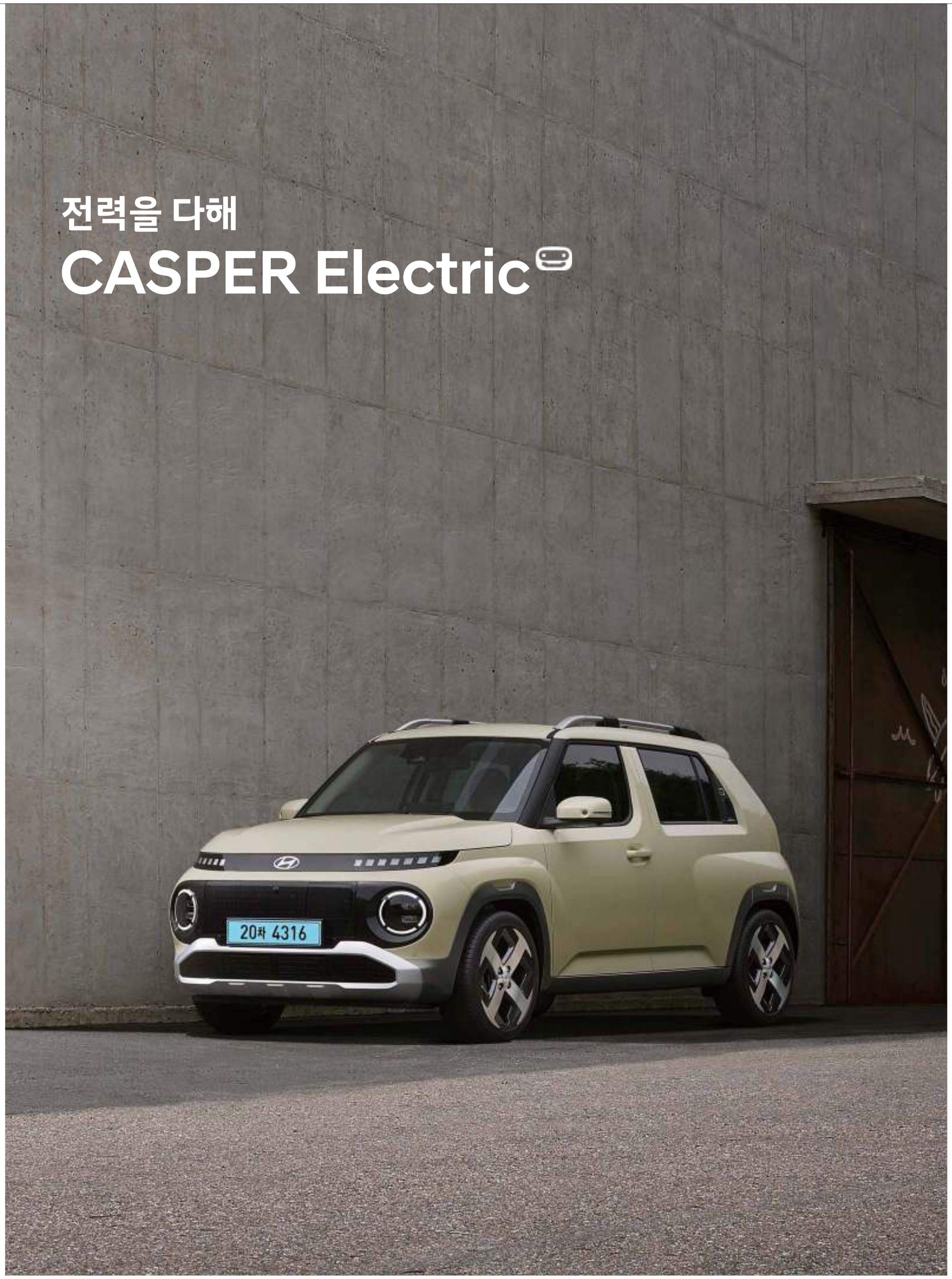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형배 의원은 발제에서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중수처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 꾸린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계나 수사직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안이다.

이성윤 의원은 발제에서 공소청장을 임기 2년에 차관급 직위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용민·이건태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를 3개월 안에 마치지 못하면 사건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하고, 8개월이 넘으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지연 방지법’(형사소송법을 개정안)도 내겠다고 했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한 번 충전으로 315km까지 달릴 수 있는 캐스퍼 일렉트릭
casper.hyundai.com에서 사전계약 중

HYUNDAI

Bluehands
고객 곁에는 항상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정비/서비스, 홈투홈 서비스, 긴급출동, 블루멤버스

■ 캐스퍼 전용 구입 문의 전화 및 고객센터: 080-500-6000 ■ 정부 공인 표준연비 ▶ 인스퍼레이션 (15inch): 복합 5.6km/kWh(도심:6.2km/kWh, 고속도로:4.9km/kWh) | CO2 배출량: 0g/km | 1회 충전 복합 주행거리 315km(도심:347km, 고속도로:275km) | 축전지 정격전압(전류용량): 310V 158.2(Ah) | 공차중량: 1,335kg | 등급: 소형 ▶ 인스퍼레이션 (17inch): 복합 5.2km/kWh(도심:5.7km/kWh, 고속도로:4.7km/kWh) | CO2 배출량: 0g/km | 1회 충전 복합 주행거리 295km(도심:323km, 고속도로:262km) | 축전지 정격전압(전류용량): 310V 158.2(Ah) | 공차중량: 1,355kg | 등급: 소형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맙시다 ※ 정속주행을 합시다 ■ 현대자동차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흥정대상?… 노사, 올리고 내리고 '쳇바퀴'

勞 초안서 1400원 낮춘 1만1200원 使 동결서 10원 올린 9870원 제시
양측 수정에 비합리적 과정 비판
다음주까지 심의 마무리 지어야
공익위원안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

올해도 시장판 흥정식 최저임금 심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남은 심의 일정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도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노동계는 최초제시안으로 올해(시간당 9860원)보다 27.8% 오른 1만2600원을 내놓은 뒤 1차 수정안에서 요구액을 1만1200원(13.6% 인상)으로 내렸고, 경영계는 최초제시안에서 동결안을 내놓은 뒤 1차 수정안에서 요구액을 9870원(0.1% 인상)으로 올렸다.

공통적인 요구액 산출 근거는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다. 문제는 노·사 모두 이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평균 가구원 수가 2.27명인 점을 근거로 근로자 생계비가 아닌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평균 생계비에는 고소득층이 포함돼 있으므로 저분위 근로자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맞서고 있다.

같은 심의자료를 양측이 유불리에 따라 달리 해석하는 상황이다. 특히 노동계는 1차 수정안에서 요구액을 최초제시안보다 1400원 내리며 최초제시안의 적정성을 스스로 부정했다. 경영계의 요구도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 경영계가 2008년(적용연도) 이후 최초제시안에서 인상안을 내놓은 건 2018년 한 해뿐이다. 2010년, 2020년, 2021년에는 삭감안을 제시했다. 나머지는 동결 요구다. 경기, 물가 등과 무관하게 관성적으로 삭감 또는 동결을 요구해왔다.

노·사는 매년 이런 식으로 각각 대폭 인상을 요구하다 조금씩 요구액을 내리고, 동결을 요구하다 조금씩 요구액을 올리는 방식으로 협상해왔다. 흥정에 실패하면 표결을 통해 다수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건 7차례뿐이다.

통상 최임위는 최종제시안에서 노·사 요구액 차이가 크지 않을 때 노동계 안과 경영계 안을 복수로 표결에 부쳤고, 요구액 차이가 클 때는 공익위원 안을 단독 표결했다. 노·사·정 각각 9인씩 동수 구성된 최임위에서 노·사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따라서 노·사 안을 표결하든 공익위원 안을 표결하든 결국은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구조다.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안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법'상 최임위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부 장관은 10일간 노·사 양측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뒤 8월 5일까지 다음 해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시되면 이를 검토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가 심의를 끝내야 하는 마지노선은 현실적으로 다음 주다. 남은 일정이 촉박해 최종제시안에서도 노·사 입장 차가 좁혀지기 어렵다. 정부는 흥정식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개선하고자 2019년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했으나, 이 개편안은 국회로 넘어가 흐지부지됐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써요 자원순환사회연대가 10일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정부서울청사R점 앞에서 스타벅스와 함께 '일회용컵 없는 날' 텀블러 이용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음료 테이크아웃이 많아지는 여름에 텀블러 이용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홍보하기 위해 열렸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전기차 중고배터리, 새 차에 다시 쓴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법 추진
3년 뒤엔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2027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 평가를 통해 폐차 전에도 배터리 가치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사업초기 수익창출이 어려운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의 정부 연구개발(R&D) 공모 참여요건이 완화되고,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제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도 2026년 중 조기 지정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 평가 △재생원료 인증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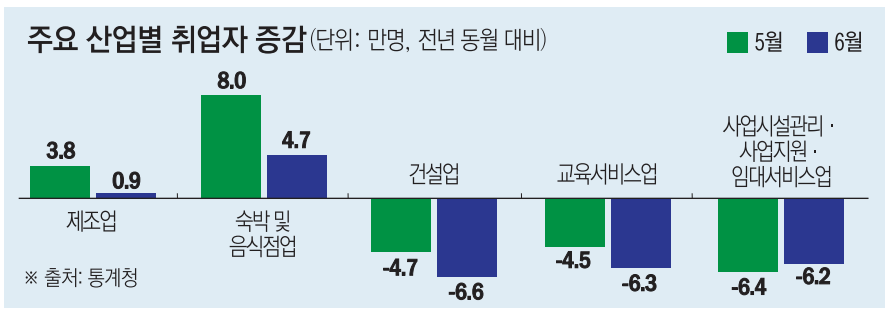
2027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 평가'를 도입해 사용후 배터리의 활용을 유도하고 관련 시장 형성을 지원한다. 사용후 배터리는 성능 평가를 통해 △재제조(상등급) △재사용(중등급) △재활용(하등급)으로 분류된다. 재제조 배터리는 전기차에 탑재할 수 있고 재사용 배터리는 에너지저장장치(ESS)·선박 등 전기차 외 용도로, 재활용 배터리는 리튬 등 광물 추출에 사용된다.

글로벌 통상규제 대응·핵심광물 확보 등을 위해 기업의 자율 참여를 전제로 내년부터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한다. 유럽연합(EU) 배터리법 시행으로 2031년까지 코발트 16%, 납 85%, 리튬·니켈 6% 이상 등 관내 유통 배터리 생산 시 재활용원료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ICT 스타트업의 창업 초기 수익 창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정부 R&D 공모 문턱을 낮춘다. 또 2026년부터 영사 분야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제도화를 검토한다. 중소·영세 사업장의 구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정 기준도 합리화한다.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한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

취업자 두달째 10만 밑돌아… 청년층 15만 감소

통계청 6월 고용동향
전년 동월 대비 9만6000명 증가
폭염 덮친 건설업 6만6000명 줄어
제조업 줄고 자영업자 감소세 지속



6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5월에 이어 2개월째 10만 명을 밑돌았다. 제조업 일자리 증가 폭은 축소되고 건설업은 두 달째 부진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0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9만6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3월 17만3000명에서 4월 26만1000명으로 늘었다가 5월 8만 명으로 꺾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청년층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견인하는 흐름도 이어졌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9000명 감소했고 40대도 10만6000명 줄었다. 60세 이상은 25만8000명 증가했고 30대는 9만1000명, 50대도 2000명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9000명 늘어 7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증가 폭은 4월 10만 명, 5월 3만8000명에서 축소됐다. 건설업 취업자는 6만6000명 줄면서 5월(-4만7000명)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다. 초여름 폭염 탓도 있지만 업황 자체의 부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서비스업(-6만3000명), 사업시설업(-6만2000명) 등에서도 줄었다. 도소매업도 5만1000명 감소해 4개월째 감소세다.

자영업자 감소세도 이어졌다. 지난달 비임금근로자는 12만7000명 줄어 5개월째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만4000명 증가했으나 '나홀로 사장님'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3만5000명 급감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2만7000명 줄었다.

정부는 건설업과 자영업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폭염 등 일시적 요인이 취업자 증가를 일부 제약한 가운데 건설업 고용 감소 폭 확대, 자영업자 감소 지속 등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도 건설업 근로자 전직 지원·생계안정 등 고용감소 분야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영 부담 완화와 재취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1년 전과 같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6월 기준 가장 높다. 실업자는 85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5만 명 늘었다. 실업률도 2.9%로 작년보다 0.2%포인트(p) 높아졌다. 6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57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1000명 늘어 40개월 만에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작년보다 12만9000명 늘었다. 청년층(15~29세)에서 4만 명 늘었고 40대와 50대도 각각 3만2000명, 3만 명 증가했다. 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

신제품·신산업 규제 혁파에 8개기관 맞손

KIAT, 규제자유특구 지원단 설립

신제품과 신산업 관련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8개 기관이 손을 잡았다.

KIAT는 올해 4월 9차 규제자유특구의 조속한 안착과 규제 법령 정비 지원을 위해 각 분야 전문 기관과 함께 '규제자유특구 규제 해소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만들었다고 10일 밝혔다.

KIAT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규제자유특구 규제해소 지원단 운영 및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KIAT는 이날 올해 상반기 지정한 9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자체와 함께 홍보하고 성공적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위한 출범식을 진행했다. 규제해소 지원단은 규제법령 관계부처가 특구 지정 시에 부대조건으로 요구한 '특구별 민·관 협의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9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경북 세포배양식품) △의료(대구 이노덴달) △리사이클링(경남 수산부산물재활용) △에너지(경남 수소 모빌리티, 충남 그린암모니아) 등 5개 특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단은 특구 내 기업이 실증 단계에서 법령 개정과 연계되는 유효한 자료를 대거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바이든, 원전 배치 촉진법 서명… 美 '원전 르네상스' 신호탄

허가기간 단축·기업 수수료 인하
脫탄소·에너지 안보 강화 기틀
트럼프도 '원자력 산업 발전' 한뜻

미국에서 '제2의 원자력 르네상스(부흥)'를 이끌 초당적 법률이 제정됐다.

9일(현지시간) 더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원자력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한 초당적 법안인 '원전 배치 촉진법(ADVANCE Act)'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신규 원전 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고, 이 과정에서 기업이 내야 하는 수수료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원자로에 대한 환경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축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미국은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가 94기로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그 대부분은 1970~80년대 세워진 것이다. 이에 원자로 평균 가동연수는 약 42년으로 세계에서 스위스, 벨기에 다음으로 오래됐다. 이에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새 법은 원전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오랜 승인 기간과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바이든 대통령은 "깨끗한 원자력과 좋은 노조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톰 카퍼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은 우리 기후와 미국의 청정 에너지 미래에 중요한 날"이라며 "이 초당적 법안은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며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이 무공해 에너지원의 지속적인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최근 원자력 발전 시장은 세계적인 탈탄소 움직임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0)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 강화가 각국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저 전원으로서 원전의 가치가 높아졌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AI),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까지 맞물리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원전이 부각되고 있다.

원전에 대한 이런 긍정적 분위기는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와는 관계없이 당분간 쭉 이어질 전망이다.

양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은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의견이 정반대로 갈리지만 원자력 산업에서만큼은 발전시켜야 한다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원전을 탄소 감축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봤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원전의 효율성에 주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첫해부터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원전 산업을 다시 살리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대선 공약에서도 △원자력 규제위원회 현대화 △기존 발전소 가동 지속 △소형모듈원자로(SMR) 투자 등을 통해 원전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변효선 기자 hsbyun@

시장 애태우는 무거운 '파월의 입'

"금리인하 데이터 더 필요" 되풀이
다우지수 0.13%↓… 실망감 반영
S&P500·나스닥은 최고치 경신
시장 "9월 금리인하 가능성 70%"

제롬 파월〈사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어떠한 힌트도 내놓지 않자 시장은 다소 실망한 모습을 보였다.

9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시점에 관해 "더 많은 지표가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우리의 확신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실업률이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는 견조한 속도로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장이 기대하던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뉴욕증시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0.07%, 0.14%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다우지수는 0.13% 하락했다.

시장에선 연준이 너무 늦게 행동해 연착륙에 실패할지 모른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매디슨인베스트먼트의 마이크 샌더스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의무를 이행한 후 연착륙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만, 낮은 경제성장률과 고용시장 약세는 잊고 있다"며 "경착륙과 실업률 상승 가능성 등이 모두 높아졌지만,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인 것은 아니다. 시장은 연준이 이달 금리를 동결하고 9월 인하를 개시하는데 베팅하고 있다.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의 금리 전망을 추적하는 CME그룹의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9월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p) 내릴 확률은 70%로 예상됐다. 3% 남짓이지만, 0.50%p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파월 의장도 구체적인 금리 경로에 대해선 함구했지만 연준이 결국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점을 넌지시 암시했다. 그는 "최근 2년 동안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고 고용시장을 냉각하는 데 있어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높은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직면한 유일한 위험은 아니다"라며 "긴축정책을 너무 늦게 또는 너무 적게 완화한다면 경제 활동과 고용이 지나치게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월 의장이 연준을 금리 인하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했다"며 "연준은 직면한 위험 평가에 관해 미묘하지만 중요한 전환을 했다"고 평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아이티판 '범죄와의 전쟁'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9일(현지시간) 경찰들이 갱단 소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이티는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즈 당시 대통령 암살 이후 갱단에 의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취임한 게리 코닐 총리는 전날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유엔이 파견한 케냐 경찰관 400명도 작전에 참가했다.
포르토프랭스/AFP연합뉴스

테슬라, 美 전기차 점유율 50% 첫 붕괴

주가, 10거래일 연속 상승장 불구
EV 모델만 100종 넘어… 경쟁 심화

테슬라 주가가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소식에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 전기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일 대비 3.71% 급등한 262.33달러(약 36만37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달 25일부터 무려 10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이 기간 상승 폭은 43.6%에 달한다. 이로써 테슬라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13거래일 연속 상승한 이후 최장 기간 상승세를 기록하게 됐다.

이러한 랠리 배경에는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2분기 인도량이 있다. 테슬라의 2분기 전기차 인도량은 44만395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6만6140대에서 4.8% 감소했으나 월가 평균 예상치 43만8019대를 웃돌았다.

하지만 미국 시장 점유율은 사상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리서치 회사 콕스오토모티브를 인용해 2분기 테슬라 시장 시장 점유율이 49.7%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59.3%에서 9.6%포인트(p)나 하락한 것이다.

그만큼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자동차업계 대표 단체인 자동차혁신연합(AAI)에 따르면 BMW나 포드와 같은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현재 미국에서만 100종이 넘는 전기차 모델이 판매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은 기존 대규모 서비스 센터 네트워크를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반면 테슬라는 서비스 네트워크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자동차 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경쟁사보다 전기차 라인업이 오래됐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테슬라의 베스트셀러인 '모델Y'는 2020년 처음 판매를 시작해 전기차 기준으로는 구식으로 통한다. 테슬라는 국가별 판매량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콕스오토모티브는 테슬라의 2분기 미국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한 16만4000대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MS·애플, 오픈AI 이사회 참관인 지위 포기

빅테크 '반독점 감시 강화' 의식 포석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이 오픈AI 이사회에서 '옵서버(참관인)' 지위를 포기하기로 했다.

10일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MS와 애플이 오픈AI에 이사회 옵서버 철수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MS는 서한에서 "8개월 동안 우린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상당한 진전을 목격했고, 회사 방향에 확신하게 됐다"며 "더는 옵서버로서 한정된 역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오픈AI는 성명에서 "우린 MS가 이사회와 회사의 방향에 확신을 표명한 데 감사드린다"며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애플의 경우 지난주 옵서버 자격을 얻어 오픈AI 이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옵서버는 이사회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해도 사업 운영 전반을 확인할 기회를 얻는다. 애플에 앞서 투자자인 MS가 옵서버로 활동 중이었다. 그러나 MS가 지위를 내려놓기로 하면서 애플도 옵서버를 맡지 않기로 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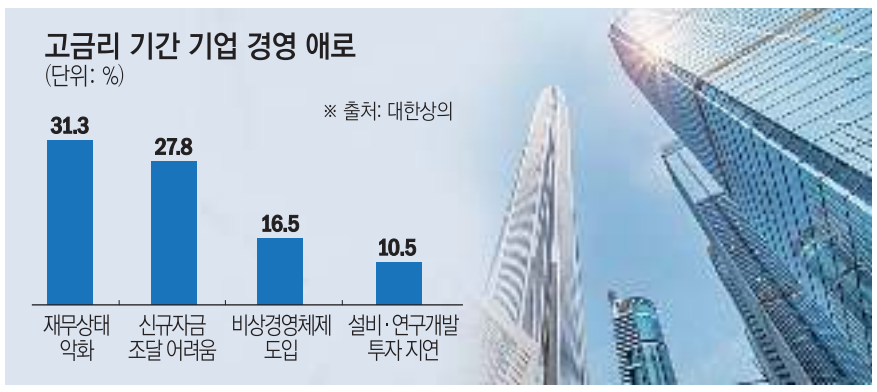
이번 결정은 빅테크의 인공지능(AI)에 대한 반독점 규제 당국의 영향력과 감시가 점점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지난달 블룸버그는 미국 규제 당국이 AI 분야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MS와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MS의 인플렉션AI 인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도 규제 당국이 MS와 경쟁업체들의 반독점 조사를 검토 중이다.

고대영 기자 kodae0@

기업 10곳 중 4곳 "상반기 이자 내면 본전 아니면 적자"

대한상의, 금리인하 전망 조사

19개월째 3.5% 고금리 여파 '어려움'
31.3% "상반기 이자 탓 재무악화"
기준금리 인하엔 보수적 전망 많아



기업 10곳 중 4곳은 상반기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이 비슷한 수준이거나 이자를 내면 적자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금리가 지난해 1월부터 19개월째 3.5%의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업 전망과 대응'을 조사한 결과 상반기 경영실적 관련 44.8%의 기업이 이자 비용을 내면 손익분기점이거나 적자 상태라고 응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이 비슷한 수준이란 응답이 30.2%, 상반기 실적을 적자로 예상한 기업도 14.6%였다. 흑자를 예상한 기업은 55.2%였다.

대기업, 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크거나 영업적자인 기업의 비중이 중소기업은 24.2%로 대기업(9.1%), 중견기업(8.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대출 문턱도 높고, 적용 금리도 더 높았다.

기업들의 최근 실적 악화는 통계로 드러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 중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보다 큰 기업의 비중은 40.1%로 2022년의 34.6%에 비해 1년 만에 5.5%포인트(p) 증가했다.

고금리 기간에 경험한 기업 경영 애로 질문에는 '이자 비용으로 인한 재무상태 악화'를 겪었다는 기업이 31.3%로 가장 많았다. '신규자금 조달 어려움'을 꼽은 기업이 27.8%로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중에 기준금리가 몇 번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47%가 '한 번'이라고 답했다. '올해는 없을 것'이라고 답한 기업도 40%에 달했다. '두 번 이상'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13%에 불과해 보수적 전망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금리 인하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32.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현재 경기 상황'(26.3%)과 '물가 상승률'(26.3%) 순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인하되면 기업들의 경영 방침 변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 시 경영 및 자금 운용의 변화 가능성 질문에 응답 기업의 40%는 '내년 경영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최근 대내외 환경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이 낮아지면 재무 상황 개선과 함께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한경협〉

류진 회장 "G7 도약 위해 최선 정부·기업·국민 가교 될 것"

한경협 'CEO 제주하계포럼' 개최
경제계 최고 지식교류의 장 꼽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1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경협 CEO 제주하계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024 한경협 CEO(최고경영자) 제주하계포럼'을 개막했다.

포럼은 10일부터 13일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대전환 시대, 초일류 기업으로 가는 길 -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열린다. 약 500여 명의 기업인이 참석해 급변하는 환경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과 미래를 주도하는 새로운 리더십 등을 논의한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취임 후 한국경제 G7(주요 7개국) 도약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대전환이라는 역사의 변곡점에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우리 기업은 대전환 시대의 파고에 맞서는 것도 벅찬데, 근거 없는 반기업 정서,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이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어 안타깝다"며 "최근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논의에 대한 경제계의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류 회장은 "시대가 우리 기업인들에게 선도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만큼, 경영자들은 시대 전환에 과감히 맞서는 도전과 혁신을 맨 앞에서 이끌어야 한다"며 "한경협도 정부·기업·국민 간의 믿음직한 가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초일류 기업으로 가기 위한 혁신'이라는 대주제에 맞춰 기업인들의 강연도 이어졌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대전환 시대에 하나금융그룹이 준비하고 있는 변화와 혁신'을,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우주에 집중하는 이유' 등을 주제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았다.

또한 신창환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의 '반도체 패권 전쟁 방향과 우리 기업의 전략',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의 '인공지능(AI)이 바꾸는 세상과 우리의 미래' 등 학계 전문가들이 미래 산업의 동향과 비전을 제시한다.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국제분쟁 대처 방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략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미래 트렌드 △노화를 늦추는 건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올해로 37회째를 맞은 하계포럼은 경제계 최고의 지식교류의 장으로 꼽힌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글로벌 인재 잇단 영입 루닛, 美 진출·AI기술 고도화 속도

유방암 검진 플랫폼 '볼파라' 인수
테리 토마스 CBO·유성원 CTO 영입

테리 토마스(왼쪽) 루닛 신임 최고사업책임자와 유성원 최고기술책임자. 사진제공 루닛

루닛이 잇따른 글로벌 인재 영입으로 미국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하고, 의료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 올해 글로벌 유방암 검진 플랫폼 기업 볼파라 헬스 테크놀로지(볼파라)를 인수하며 향후 사업 전략에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만큼 인재 영입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루닛은 자회사 볼파라의 최고경영자(CEO) 테리 토마스를 신임 최고사업책임자(CBO)로, 구글·인텔 출신 유성원 박사를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영입했다.

토마스 CBO는 루닛과 볼파라가 원활히 소통하고 글로벌 세일즈 등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헬스케어 업계에서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그는 미국 1위 전자의무기록(EMR) 기업 에픽(Epic)에 20년 이상 몸담으며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기획을 총괄했다. 볼파라에는 2022년 10월 CEO로 부임해 현재까지 회사를 이끌고 있다.

볼파라는 미국 내 2000여 개 유방암 검진기관에 유방암 검진 솔루션을 제공하며, 전체 매출의 97%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할 정도로 사업 기반을 갖췄다. 루닛은 볼파라 고객을 대상으로 유방암 검진 AI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MMG와 루닛 인사이트 DBT를 판매할 계획이다. 토마스 CBO가 양사의 세일즈와 마케팅 전략을 총괄한다. 올해는 미국과 유럽, 중동·아프리카(EMEA) 지역 사업에 집중하고, 내년부터 신규 시장으로 확장을 주도할 계획이다.

구글, 인텔 등 글로벌 빅테크 출신의 유 CTO는 루닛의 기술 고도화를 책임진다. 루닛은 유 CTO가 의료AI 기술력을 강화하고 AI 제품군을 고도화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유 CTO는 소프트웨어 개발·관리를 10년 이상 경험하며 클라우드 플랫폼 성능 최적화,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이끌었다.

특히 유 CTO는 루닛이 미래 비전으로 발표한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를 위해 기존 AI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의료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지휘한다. 볼파라가 확보한 1억 장 이상의 의료 데이터와 자체적으로 확보한 다국적, 다인종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기초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루닛 관계자는 "의료AI 플랫폼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인재 영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사에 도움이 된다면 추가 인재 영입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중고 침수차 구매시 100% 환불에 추가 보상도

중고차업계, 판매근절 등 신뢰 제고

중고차업계가 장마철을 맞아 침수차 판매 근절에 나선다. 침수차 구매 시 100% 환불은 물론 수백만 원의 추가 보상금도 내걸면서 중고차 업계의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10일 중고차업계에 따르면 직영 인증 중고차 플랫폼 리본카는 전국 지점과 온라인 플랫폼을 '침수차 ZERO 존'으로 선포하고,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직영 중고차 플랫폼 케이카(K Car)도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 구매를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고차 거래 플랫폼 엔카닷컴은 장마철 폭우로 인한 중고차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를 위해 '엔카믿고' 서비스 이용 고객 대상으로 침수차 책임 환불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중고차 매매업자와 정비업자 등이 침수차량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는 경우 폐차 지연 기간에 따라 기존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100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업자와 정비업자들이 침수로 전손처리된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 요청을 하지 않았을 때 10일 이내 지연되면 최소 200만 원을 부과하며, 이후 하루 20만 원씩 과태료가 더해져 50일 이상 경과한 시점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남호 기자 spdran@

"글로벌 뷰티·헬스종합기업 도약"

코스맥스그룹 'CI' 바꾸고 정체성 강화

COSMAX

코스맥스그룹은 기업이미지(Corporate Identity·CI)를 변경했다고 10일 밝혔다.

코스맥스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이다. 새로운 CI에는 K뷰티를 넘어 글로벌 뷰티&헬스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한 코스맥스그룹의 정체성을 반영했다.

새 CI는 코스맥스의 경영 철학인 바름·다름·아름을 상징하는 낙관 형태의 심볼을 유지하고 기존 우측 상단에서 중앙 배치로 수정했다. 해외 법인 지명은 워드마크 아래로, 계열사명은 심볼 오른쪽에 배치해 기본 CI를 기준으로 통일성 있는 변주가 가능하다. CI 하단에 함께 사용하던 태그라인(tagline·기업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함축적인 문구)은 삭제했다.

대신 기존 'K뷰티의 과학(The Science of Korean Beauty)'에서 '아름다움의 과학(The Science of Beauty)'으로 변경하고 향후 코스맥스그룹을 설명하는 고유 수식어로 사용한다. 또한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업 이미지를 반영해 선과 픽토그램 중심의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수립했다. 신규 CI와 가이드라인은 본사 및 해외법인 홈페이지, 명함, 사원증 등에 순차 적용할 방침이다.

코스맥스그룹은 1992년 사과 세 개의 약속(바름, 다름, 아름)으로 출발해 K뷰티 산업의 선봉장에서 최초와 혁신 기술을 잇따라 선보이며 화장품에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으로 사업 분야를 꾸준히 확장해왔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코스맥스그룹은 전 세계 27개 생산기지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화장품 부문 사업회사인 코스맥스는 2015년부터 글로벌 1위 화장품 ODM사로 평가받고 있으며 초격차 기술로 업계를 리딩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kjy42@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밤 늦게도, 휴일에도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신청구분 | ①365일형: 24시간 ②주말·공휴일형: 토/일요일, 공휴일 9시~18시
신청방법 | 하나돌봄365 홈페이지(www.hanadolbom365.com)

돌봄 신청하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LS전선, 1조 투자… 美 최대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

미국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시에서 열린 'LS전선 미국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 발표 행사에서 글렌 영킨(왼쪽) 버지니아 주지사와 구본규 LS전선 대표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LS그린링크 버지니아주 공장 조감도. 사진제공 LS전선

동부 버지니아州 2025년 착공
연간 30% 성장 미국 시장 선점
美, 2000억 보조금·세제 지원

LS전선이 약 1조 원을 투자해 미국 최대 규모의 해저케이블 공장을 건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공장은 동부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시에 위치하며, 엘리자베스강 유역 39만 6700㎡(약 12만 평) 부지에 연면적 7만 ㎡(약 2만 평) 규모로 지어진다. 20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 예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200m 규모의 전력 케이블 생산 타워도 갖추게 된다.

LS전선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해저케이블 시장 선점을 위해 선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회사 측은 "미국 해상풍력발전이 대부분 동부 해안을 따라 추진되고 있어서 체서피크시는 입찰, 선적, 운반 등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LS전선은 주 정부로부터 약 48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로써 에너지부(DOE)의 9900만 달러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지원을 포함해 총 1억4700만 달러(약 2027억 원) 규모의 지원을 확보했다. 이는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전선업체 중 최대 규모다.

구본규 LS전선 대표는 "이번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해저케이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LS전선이 글로벌 선도기업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글렌 영킨(Glenn Youngkin) 버지니아 주지사는 "버지니아주의 숙련된 인력, 우수한 입지 조건과 비즈니스 환경이 LS그린링크의 투자 유치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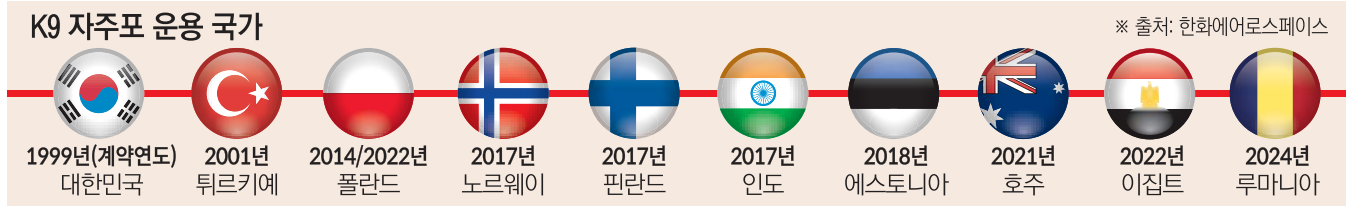
카렌 메릭(Caren Merrick) 버지니아주 상무부 장관은 "LS그린링크가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의 거점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버지니아주의 파트너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LS전선의 미국 공장 건설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LS마린솔루션의 대형 케이블 시공 선박 건조와 LS에코에너지의 유럽 해저사업 추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록 기자 syr@

한화, 루마니아와 K9 자주포 1.4조 계약… 10개국 공급

자주포 54문·탄약운반차 36대
나토 운용국도 6國으로 늘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와 K9 자주포 54문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K9은 한국군을 포함한 전 세계 10개국이 사용하는 베스트셀러 자주포의 입지를 굳히게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9일 루마니아 국방부와 부쿠레슈티 현지에서 1조3828억 원 규모 자주포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현지 업체와 협력해 K9 자주포 54문과 K10 탄약운반차 36대 등을 2027년부터 순차 납품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독일의 PzH 2000, 튀르키예의 퍼티나(Firtina) 자주포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경쟁 제품을 제치고 이번 사업을 수주했다.

4개월 경쟁 끝에 올해 초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으며, 그동안 루마니아 정부와 세부 협상을 진행했다.

K9과 K10 외에도 정찰·기상 관측용 차륜형 장비, 탄약 등 '자주포 패키지' 등을 포함하는 토털솔루션을 제시하면서 최종 계약을 이끌어 냈다.

앞서 정부는 양국 정상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최초로 개최하는 등 방산 수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루마니아의 10번째 운용국 합류로 K9(K10 포함)의 누적 수출 총액은 13조 원을 돌파하고, NATO 회원국 중 K9 자주포를 도입한 국가는 6개국까지 확대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보병전투장갑차(IFV) 사업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독일, 영국 등 글로벌 방산 기업이 참여 예정인 이 사업에는 레드백 장갑차를 내세울 계획이다. 레드백 장갑차는 이미 호주에 납품한 바 있다. 레드백 장갑차는 K9과 동일한 동력시스템 등을 적용했기 때문에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이동욱 기자 toto@

현대차그룹 친환경차 날개
올해 英 20만대 판매 전망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자동차 종주국인 영국에서 처음으로 20만 대 판매를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판매 차량의 절반이 전기차(BEV),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 친환경차다.

10일 영국자동차공업협회(SMMT)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내 3개 완성차 브랜드 현대자동차·기아·제네시스는 영국에서 올해 상반기 10만7326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 판매량이 늘었다. 이들 브랜드는 지난해 영국 시장에서 역대 최대 연간 판매 대수인 19만6239대를 판매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의 영국 시장 점유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10.66%로 2022년 이후 1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3개 브랜드 중 올해 1~6월 영국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곳은 기아다. 기아는 이 기간 6만366대를 판매해 영국 자동차 시장 4위를 차지했다. 현대차는 4만 6404대를 판매해 48개 이상의 브랜드가 경쟁하는 영국 시장에서 9위에 올랐다. 제네시스는 같은 기간 556대 판매로 39위를 기록했다.

이민재 기자 2mj@

조선 상반기 수주 中에 한참 밀렸지만…

2분기 침체로 中 64%·韓 25%
美 '中 견제 강화'로 역전 기대

올해 1분기 중국과 비등한 선박 수주율을 기록했던 국내 조선사들이 상반기 글로벌 선박 수주량에서는 중국에 압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중 갈등 지속으로 중국 조선소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견제 의지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조선사들이 점유율 역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 세계 선박 수주량 중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비율은 25%, 약 594만 표준환산톤수(CGT)로 2위를 기록했다. 중국 조선사들은 64%(1540만CGT)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올 1분기만 해도 국내 조선사들은 449만CGT를 수주하며 490만CGT를 수주한 중국 조선사들과 비등한 수주량을 기록했다.

또한, 3년 만에 1분기 126억 달러를 수주한 중국 조선사를 제치고 선박 수주액 1위(136억 달러)를 탈환하는 등 좋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2분기 수주가 부진하며 상반기 종합 중국 조선사들이 양적인 면에서 다시 국내 조선사들을 압도하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이처럼 중국에는 75개 이상의 조선소가 운영되는 등 생산 규모에서 차이가 큰 만큼, 앞으로도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량에서 중국을 앞서긴 쉽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의 중국 조선업 견제 강화 움직임에 국내 조선사들의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달 그리스에서 열린 조선·해양 전시회인 '2024 포시도니아'에서도 확인됐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포시도니아에서 나온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중국 조선업에 대한 미국의 견제였다"면서 "향후 미국이 자국에 중국산 선박 입항 시 관세를 부과하거나 입항 금지까지 고려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철강노조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국의 해양·물류·조선업에 불공정 무역 관행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국 정부가 조선·해양 산업에서 인위적인 가격 낮추기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것이 이유다.

김해욱 기자 haewookk@

르노 '그랑 콜레오스' 사전예약 7000대

'에스프리 알핀' 트림 국내 첫선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최상위 트림 '에스프리 알핀' 모델. 사진제공 르노코리아

르노코리아가 최근 '2024 부산모빌리티쇼'에서 최초 공개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의 사전 예약이 7000대를 넘겼다.

10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그랑 콜레오스는 지난달 27일 공개 이후 7일까지 사전 예약 건수 7135대를 기록했다. 르노코리아의 미래차 개발 프로젝트인 '오로라 프로젝트'의 첫 주자가 성공적으로 데뷔했다는 평가다.

그랑 콜레오스는 르노 최초의 SUV인 콜레오스의 성공 신화를 계승한다. 차 이름도 강인함, 견고함 등을 의미하는 라틴어 '코리옵테라(coleoptera)'에서 영감을 받은 '콜레오스(Koleos)'에 웅장함을 뜻하는 '그랑(Grand)'을 더했다. 새로운 차체 크기와 동급 최고 수준의 뒷좌석 공간을 갖춘 르노 브랜드의 최고급 SUV 모델이란 의미다.

특히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의 최상위 트림인 '에스프리 알핀' 모델은 국내 시장에 처음 선보이는 최상위 트림이다. 정통 스포츠카 브랜드 '알핀'의 헤리티지를 접목했다.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는 '매일을 함께하는 차'라는 르노의 핵심 가치를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선사한다. 2820㎜의 동급 최대 휠베이스로 넉넉하고 편안한 뒷좌석 공간을 제공하며, 차체의 18%를 초고강도 '핫 프레스 포밍(HPF)' 부품으로 구성해 뛰어난 안전성도 갖췄다.

최대 31개의 최첨단 주행 보조 기능(ADAS)과 자율주행 2단계 수준의 '액티브 드라이버 어시스트'를 모든 트림에 기본 사양으로 탑재했다. 실시간 티맵 네비게이션과 음성인식 시스템 누구 오토를 기본 제공한다. 애플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의 무선 연결도 지원한다.

강문정 기자 kangmj@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창립 총회
국회·민관산학 전문가 50명 참여

우주항공산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와 민관산학 전문가가 총망라된 포럼이 출범했다. 각계 전문가들은 입법, 정책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건강한 우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 포럼은 범국민적인 우주항공산업 대응과 입법·정책 거버넌스 실현을 위해 마련했다.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을 지낸 김종암 서울대 교수과 권진회 경상국립대 총장,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등 50여 명의 국내 우주항공분야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서천호 의원과 곽신웅 국방우주학회장(국민대 교수), 강구영 KAI 사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이동욱 기자 toto@

“2027년까지 AI 유니콘 3개 발굴… 세계 무대 개척 지원”

중기부 ‘AI 스타트업 링크업 협의회’ 첫 회의

#. 뤼튼테크놀로지스는 인공지능(AI) 검색을 바탕으로 채팅과 스튜디오, 툴 등 다양한 AI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매월 2500만 건 이상 수집되는 이용자·AI 대화 데이터에 대한 분석 기술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AI를 결합해 이용자의 실제 체감 성능을 극대화하는 AI 컴파운드 시스템(AI Compound System) 개발과 활용에 힘쓰고 있다.

#. 엑소시스템즈는 AI를 기반으로 재활 운동을 돕는 근골격계 디지털 치료기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이 기업의 핵심기술은 신경 근골격계의 기능을 평가하는 디지털 바이오마커(MFI) 분석 AI 솔루션이다. 디지털 치료기를 피부에 부착하면 기기에서 보낸 신경 자극에 반응한 중추신경계 신호를 파악해 환자의 근신경계 상태를 정량적으로 측정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열린 ‘AI 스타트업 링크업(Linkup) 협의회’에서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LevelUp)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중소벤처기업부

고성장 5개분야 전략적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동력 확대
AI 국내 투자 1조원까지 늘려

중소벤처기업부가 AI 초격차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량화 언어 모델(sLLM) 등 5개 고성장 분야를 선정하고, 이 분야 스타트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10일 ‘AI 스타트업 링크업(Linkup)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초격차 AI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레벨업 전략’은 △sLLM·AI 팹리스·제조·헬스케어·문화콘텐츠 등 AI 스타트업 고(高)성장 5개 분야 전략적 지원 △국내시장 수요를 활용한 성장 강화 △글로벌 시장 진출로 성장 동력 확대 △전문인력 활용 제고 및 거버넌스 구축 등 총 4개의 전략 과제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이번 정책 추진을 위해 2027년까지 AI 유니콘 3개사를 육성하고, AI 국내 투자 규모를 4000억 원에서 1조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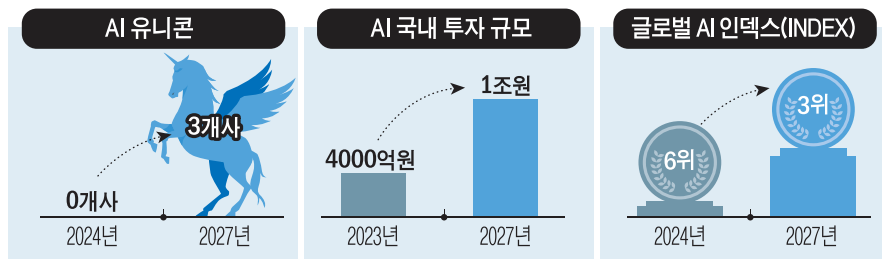
먼저 AI 스타트업 고성장 5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온디바이스(On-Device) AI에 최적화된 sLLM 스타트업과 AI 반도체 개발 팹리스 스타트업을 선발해 기술 특성에 맞는 상용화, 제품 검증, 스케일업 등을 특화 지원한다. 또 AI와 융합해 경제 및 사회적으로 혁신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제조·헬스케어·콘텐츠 등 3대 유망 산업 분야의 AI 산업 대전환(AX·AI Transformation) 스타트업을 선발해, 산업별 특성에 특화된 AI 공정 솔루션 기술 고도화, 기술이전 촉진, 데이터 수집 비용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국내시장 수요를 활용한 성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등이 만든 스마트 기기에 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더한 AI 기술을 탑재하는 ‘온디바이스 AI 챌린지’를 생활가전, 스마트폰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로 확대한다.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로 성장 동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유명 AI 학회와 전시회 참여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어 발굴, 수출 계약 등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2026년 시행 예정인 EU 규제법(AI Act) 등 주요국 AI 규제 기반 글로벌 인증과 인허가 획득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이 고급 인재의 창업 유도를 위해 AI 대학원의 석박사를 대상으로 고성장 AI 분야 창업 및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레벨업 전략을 통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고성장 분야의 국내 AI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초격차 기술 보유 AI 스타트업 레벨업’ 정책방향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내년 최저임금 13.6% 오르면 4인이하 소기업 9.6만곳 폐업”

파이터치硏, 유럽 자료 활용 보고서
최저임금위 10차 회의 오늘 재개

내년도 최저임금을 13.6% 인상하면 4인 이하 소기업이 9만6000개 폐업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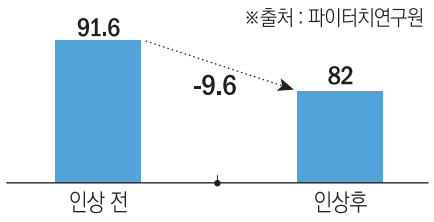
파이터치연구원은 유럽 15개 국가의 2009년~2020년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증가할 때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한다.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1~4인 소기업들은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전가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폐업률이 증가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반면 종업원이 없는 기업의 폐업률은 0.73% 감소한다. 종업원이 없는 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갖춰 폐업률이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에서 1만1200원으로 13.6%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 인상돼도 4인 이하 소기업의 폐업률은 증가하므로 최대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저임금 13.6% 인상 시 4인 이하 소기업 영향 (단위 : 만개)
※출처 :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원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몽고메리 카운티의 최저임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과일·채소·낙농품·축산물 등 1차 산업과 직접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류서빙, 사냥·낚시 가이드, 재택근로자 등을 특례대상으로 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했다. 일본은 사업별 통상적인 임금지급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자바현은 철강업(1096엔), 정보통신(1055엔), 상품 소매업(1026엔) 등 업종에 따라 다르다.

한편 경영계는 ‘9860원 동결’ 요구에서 단 10원을 올려 수정안을 제시했다. 10차 전원회의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배민 ‘배달 중개수수료’ 6.8%→9.8% 내달 인상

배달의민족(배민)이 다음 달부터 배달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한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8월부터 주문 중개에서 배달까지 수행하는 ‘배민1플러스’ 중개 이용료율을 9.8%로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개편 요금제는 8월 9일부터 적용한다.

배민은 다만 업주 부담 배달비는 지역별로 건당 100~900원 낮춘다. 현재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2500~3300원 수준으로, 이를 1900원~2900원으로 인하한다.

조남호 기자 spdran@

LG U⁺, '피드+위젯' 新서비스 출격 채비… 체질개선 박차

특허청에 '피드젯' 상표 출원
이용자들 위젯으로 일상 공유
MZ 타깃… 이모티콘 선물도
통신 넘어 신사업 잇단 도전장

LG유플러스 신사업 추진 일지

연도	월	내용
2022년	8월	반려동물 커뮤니티·여행 플랫폼 '포동' 출시
2023년	3월	일상 기록 SNS '베터' 출시
	5월	메타와 디지털마케팅 업무 협약 체결
2024년	5월	새 슬로건 '그로스 리딩 AX컴퍼니' 발표
	6월	생성형 AI 익시젠 출시
	7월	AI 중장기 전략 '올인 AI' 발표 新서비스 'Pidzet'상표 출원

인공지능(AI) 회사로 체질 개선에 나선 LG유플러스가 위젯과 SNS를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LG유플러스는 3일 특허청에 '피드젯'(Pidzet)의 영문상표를 출원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피드젯은 '친친끼리 일상을 채우는 홈화면'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용자들이 위젯을 통해 사진 등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들이 함께 홈 화면을 꾸미며 일상을 공유할 수 있고, 사진뿐 아니라 이모티콘 등 선물도 위젯을 통해 서로 공유할 수 있다.

LG유플러스가 상표 출원을 내며 제출한 피드젯 지정 상품 설명에는 △사용자 간 메시지·코멘트·멀티미디어 콘텐츠 전송용 온라인 채팅룸 제공업 △사진·영상 및 홈화면 공유 관련 위젯(widget) 서비스용 메시지 전송업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설계업, 인스턴트 메시징 소프트웨어 등이다.

피드젯은 최근 일부 LG유플러스 고객을 대상으로 비공개 테스터도 모집했다. 피드젯 홍보를 위해 X(구 트위터) 계정도 올해 5월 개설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피드젯은 친구 연인 등과 사진을 공유하는 위젯 서비스"라면서 "MZ 고객을 위해 테스트성으로 기획한 것으로, 출시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통신 영역을 넘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3월 일상기록 플랫폼인 '베터(Better)'를 출시한 바 있다. 베터는 사진과 함께 1500자 이내의 가벼운 글에 최적화된 SNS 플랫폼이다. 2022년 8월에는 반려동물 특화 서비스 '포동 멍래블'도 선보인 바 있다.

이러한 신사업 도전은 통신 영역을 넘어선 새로운 먹거리 개발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내 통신 시장의 둔화로, 이동통신 3사 모두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올해 5월 'AI 전환으로 고객의 성장을 이끄는 회사(Growth Leading AX Company)'로 슬로건을 바꾸고,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AI를 △광고 △B2B 솔루션 △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 적용하면서, SNS에도 AI를 접목할 계획이다. sLLM(소형언어모델) '익시젠(ixi-GEN)' 및 기술 고도화를 넘어 다양한 영역의 신사업에 도전하며, 수익화될 서비스 플랫폼을 발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5월 LG유플러스는 메타와 디지털 마케팅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익시(ixi) 공식 인스타그램 메신저에 AI 기반 익시 챗봇을 도입한다. LG유플러스는 AI를 활용한 세로형 릴스 제작 플랫폼도 준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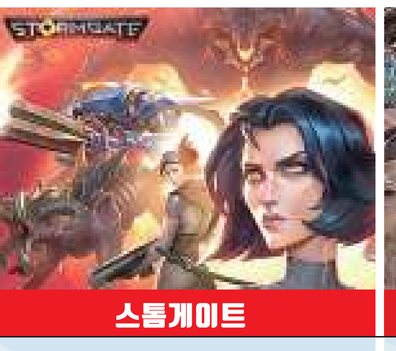
안유리 기자 inglass@

게임은 지금 'RTS 르네상스'… 제2 스타크래프트 나올까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카겜, 내달 '스톰게이트' 출시
엔씨 '택탄…' 내년 선보일 듯
텐센트 신작 '배틀 에이스' 준비
장르 다양화로 신규 유저 확보

출시 예정 RTS 신작



	스톰게이트	택탄: 나이츠 오브 더 가즈	배틀에이스
개발사	프로스트 자이언트 스튜디오 (카카오게임즈 투자사)	엔씨소프트	언캡드 게임즈 (텐센트 손자회사)
게임 특징	신규 유저부터 숙련자까지 적응 가능한 낮은 진입장벽	RTS 장르에 MMO 결합	자동화 자원 수집, 즉각 유닛 생성 등 RTS서 찾아보기 어려운 요소 삽입
출시 예정 시기	8월 14일	내년 출시 목표	미정

'스타크래프트'로 대변되는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RTS) 게임 장르의 신작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다중접속역할게임(MMORPG)나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다중사용자 온라인 전투 아레나(MOBA) 장르 등에 밀려 인기가 시들해졌던 RTS가 'RTS 르네상스' 시기를 재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게임사들은 RTS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RTS는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등이 흥행하며 큰 인기를 누린 바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미국 프로스트 자이언트 스튜디오가 개발한 RTS 신작 '스톰게이트'의 퍼블리싱(유통)을 맡아 내달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31일에는 얼리액세스를 시작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e스포츠 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스톰게이트의 개발사 프로스트 자이언트 스튜디오는 스타크래프트2 프로덕션 디렉터였던 팀 모튼(Tim Morten) 대표와 워크래프트3 수석 캠페인 디자이너였던 팀 캠벨(Tim Campbell) 게임 디렉터 등 RTS 베테랑 개발자들이 설립한 회사다.

스톰게이트는 신규 게이머부터 RTS 장르 마니아까지 모두 즐길 수 있도록 기존 RTS 게임 대비 낮은 진입장벽이 특징이다. 게임은 무료로 플레이 할 수 있다. 추가되는 스토리 캠페인들은 유료로 판매될 예정이다. 스톰게이트에는 인간으로 구성된 '뱅가드', 외계 종족 '인퍼널', 미래지향적 디자인의 '셀레스철' 등 세 개의 종족이 등장한다.

텐센트의 손자회사인 언캡드 게임즈는 RTS 장르의 신규 지식재산(IP) 배틀 에이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언캡드 게임즈 역시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등 RTS 명작을 제작했던 RTS 게임 개발자들을 주축으로 구성돼 있다. 배틀 에이스 개발은 스타크래프트2 수석 밸런스 디자이너 데이비드 킴(David Kim)이 이끌고 있다. 배틀 에이스 역시 자동화된 자원 수집, 즉각적인 유닛 생성, 사전 설정 등을 통해 RTS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 경기 시간은 10분, 매 경기 이후 유닛 덱을 교체하며 유저가 플레이 스타일과 전략을 조정할 수 있다.

엔씨소프트는 신규 지식재산(IP) '택탄: 나이츠 오브 더 가즈'를 개발하고 있다. 이 게임은 대규모다중접속(MMO)에 RTS 요소를 접목한 점이 차별점으로 꼽힌다. 엔씨소프트는 내년 출시를 목표로 최근 사내 테스트에 돌입한 상태다. 해당 게임은 지난해 지스타에 현장 무대 행사에서 소개되며 유저들의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게임사들이 다시 RTS에 집중하는 이유로는 이들이 최근 RTS를 서비스해오지 않았다는 점이 꼽힌다. MMORPG 등에 치중된 게임을 선보였던 게임사들은 RTS 게임을 통해 신규 유저를 확보하고,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RTS는 플레이어 간 대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라이브 서비스 게임에 적합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라이브 서비스는 수백 시간 이상 플레이를 유도해 수익을 거두기에 유리하다.

임유진 기자 newjean@

폭증하는 사이버 위협… 정부 "'공세적 방어'로 전환"

"범국가적 협력·무기 국산화" 제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식별해 예방하는 '공세적 방어 태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대독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사이버 보안의 패러다임이 '소극적 방어'에서 '공세적 방어'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각각의 경험과 사이버 위협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하는 범국가적 협력체계가 작동돼야 한다"며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사이버 안보를 위해 '공세적 방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공세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공세적 방어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세적 방어는 미리 적의 시스템에 침투해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막는 것을 의미한다. 박 대표는 "이러한 공세적 역량의 핵심은 사이버 무기"라며 "우리나라 스스로 무기를 개발해 사이버 무기를 국산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종인 대통령사이버특별보좌관은 사이버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보좌관은 "2021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 사이버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인터넷 서비스를 해킹해 네트워크를 마비시켰다"며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밀접한 최근 환경에서 북한의 사이버 전력이 더 강화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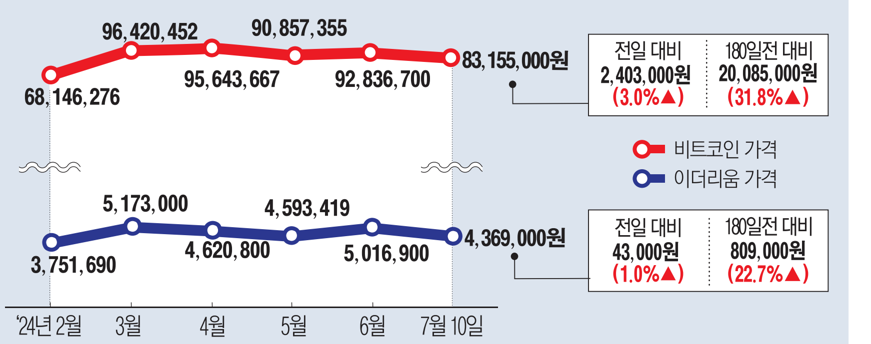
이에 국제적 협력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디미트리 커스네조브(Dimitri Kusnezov) 미국 국토안보부 차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제는 회사가 보안 위험을 책임지지 않는다.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이를테면 한미 정부 협력을 통해 사이버 테러에 맞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만이 진화하는 위협과 보안 문제에 맞서는 보안 투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며 글로벌 공조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정보보호 유공자 시상식 △정보보호 의식 고취를 위한 영상 상영 및 세리머니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 △정보보호 우수 제품 전시회 등이 진행됐다. 정보보호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국가 디지털신분증 도입 및 발전에 핵심 역할을 수행한 김의석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이 수여됐다.

이은주 기자 letswin@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4년 7월 10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485,100	11,800 (2.5%▲)	이오스	738	8 (1.1%▲)
리플	620	6 (1.0%▲)	트론	183	1 (0.5%▲)
솔라나	203,500	2,800 (1.4%▲)	스텔라루멘	125	2 (1.6%▲)
에이다	540	15 (2.9%▲)	비트코인에스브이	53,650	1,500 (2.9%▲)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한양정밀 회장〉

‘키맨’ 신동국이 봉합한 한미家 분쟁… “전문경영인 체제”

한미약품 새판짜기에 쏠린 눈

신 회장 지분 18.92% 그룹 실세

임종윤 이사도 “신 회장과 협력”

전문경영 체제 본격가동 앞두고

임 이사와 선그은 現대표 박재현

교체 여부에 신 회장 영향력 주목

올해 초 시작된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키맨’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통해 끝을 맺었다. 창업 이래 이어진 오너경영에서 전문경영 체제로 변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신 회장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10일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측은 6개월 이상 이어온 가족간 분쟁이 신 회장을 중심으로 종식됐다고 밝혔다. 송영숙·임주현 모녀가 신 회장에게 한미사이언스 지분 매도와 의결권공동행사약정 계약을 맺어 형제 손에 있던 경영권이 흔들린 지 일주일만이다.

신 회장은 한미약품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절친한 고향 후배로,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주다. 그동안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소유했던 신 회장은 모녀의 지분 6.5%를 사들여 18.92%의 지분을 확보, 단숨에 그룹 실세로 떠올랐다. 송 회장은 8일 경영일선에서 전격 퇴진하면서 신 회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 과정에서 가족간 갈등은 신 회장과 수차례 면담 끝에 결국 화합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두 형제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책임경영과 전문경영, 정도경영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융합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임종윤 이사 측은 “신 회장과 함께 기업가치 상승(밸류업)을 신속한 성과까지 이어지게 하는 데 필요한 인적자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신 회장과 모녀, 형제로 구성된 한미약품그룹 경영집단은 특수관계인이나 우호지분 없이도 과반의 지분을 갖게 된다. 신 회장은 해외 매각설과 지분 재경쟁과 관련 “(창업주 일가 중) 누구도 한미약품을 해외에 매각할 뜻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 창업주 일가와 한미약품그룹을 성장으로 이끌겠단 명분을 강화했다.

임종윤·종훈 형제는 올해 3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각각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대표에 오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임종훈 이사는 단독 대표에 올랐지만, 임종윤 이사는 지난달 한미약품 임시주총 이후 대표 선임이 불발됐다. 다만 임종윤 이사도 전문경영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본인 거취와 별개로 한미약품은 본격적인 전문경영 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신 회장의 입맛에 맞게 꾸려질 전문경영인 라인업이다. 한미약품은 임성기 회장 시절 우종수·권세창·이관순 3인의 연구자 출신 전문경영인과 함께 대규모 기술수출 등 연구개발(R&D) 성과를 달성했다. 임 회장 사후 송영숙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며 이들 ‘올드맨’은 모두 물러났다.

현재 한미약품 대표는 제조본부장을 지낸 박재현 사장이다. 박 사장은 최근 불거진 북경한미와 임종윤 이사의 개인 회사 코리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의혹 조사를 지시하는 등 형제 측에 선을 긋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임종윤 이사도 박 사장에 대해 자신과 함께할 전문경영인이 아니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박 사장 체제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경영권 분쟁의 시발점은 54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상속세 이슈였다. 신 회장의 개입으로 남은 상속세를 납부할 해결책을 찾으면서 가족간 갈등 봉합에 이른 것으로 관측된다. 신 회장은 “지분 매입은 상속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한미약품을 지키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며 “대주주 전체 오버행 이슈가 없도록 자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일지

1월	12일	송영숙 회장, OCI그룹과 통합 발표
	17일	임종윤·종훈 형제, 신주발행 반대 가처분 신청
3월	23일	신동국 회장, 형제 측 지지 선언
	26일	법원, ‘한미–OCI 통합 반대’ 가처분 기각
	27일	승계자 지목된 장녀 임주현, 부회장 승진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서 형제 승리
4월	4일	한미사이언스, 임종훈·송영숙 공동 대표 선임
5월	14일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
6월	18일	한미약품, 임종윤·종훈 사내이사 선임
7월	3일	송영숙·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지분 6.5% 신동국에 매도
	8일	송영숙, 경영일선 퇴진 발표
	10일	신동국·임종윤, 경영권 분쟁 종식 선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막오른 ‘BIX 2024’ … K바이오, 비만약 ‘GLP-1’ 신기술 전면에

국내 최대 바이오 행사 12일까지

GLP-1 수용체 기전 치료제 인기

한미·동아에스티 개발 현황 공개

파킨슨병 등 적응증 확장 기대감

15國 250여개사 비즈니스 기회

전 세계적으로 위고비, 젭바운드 등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수용체 작용제 기전의 비만치료제가 인기를 끌면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도 단순히 살을 빼기보다는 퀄리티(quality·질) 높은 체중감소를 무기로 한 비만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 또 GLP-1 수용체 작용제로 파킨슨병, 대사이상 지방간염(MASH) 등 다른 질환에 대한 적응증 확대 가능성도 탐색하고 있소 관심이 쏠린다.

GLP-1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췌장의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 혈당과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다. GLP-1 수용체 작용제 기전의 비만치료제는 15~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 기존 비만치료제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GLP-1 수용체 작용제가 파킨슨병, MASH, 심혈관계질환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면서 적응증 확대 가능성도 있다.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코리아 2024(BIX 2024)’의 GLP-1: 비만치료제 시장의 적응증 확대 흐름’ 주제 학술행사를 통해 국내 주요 기업들은 비만치료제 개발 현황과 전략을 모색했다.

최인영 한미약품 R&D센터장은 GLP-1, 위억제펩타이드(GIP), 글루카곤(GCG) 등 각각의 수용체 작용을 최적화해 비만치료에 특화시킨 비만치료 삼중 작용제 ‘HM15275’ 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현재 HM15275는 미국 임상 1상에 진입했다. 최 센터장은 “전임상 연구에서 체중 감량 효과가 컸다. 앞으로는 체중감소의 질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4(BIX 2024)’의 삼성바이오에피스 부스에서 참관객이 자가 주사형 류마티스 치료제 사용 체험을 하고 있다. BIX 2024는 국내외 바이오·제약업계의 기술·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사업 파트너링부터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등을 통한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신태현 기자 holjjak@

GLP-1·GCG 이중작용제 ‘DA-1726’을 개발하는 김미경 동아에스티 연구본부장은 “GLP-1·GCG 이중작용을 통해 식욕 억제 외에 신체 말초에서 대사를 증진시켜 운동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에스티는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뇌질환에 대한 GLP-1 제제 사용 가능성도 발표됐다. 최근 GLP-1 약물이 미세아교세포를 타깃해 신경염증 반응을 차단하는 작용 메커니즘이 밝혀지면서 파킨슨병 및 알츠하이머병에서도 활발한 임상 및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슬기 디앤디파마텍 대표는 “젊은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가능성을 봤다. 대사질환과 MASH, 비만에 집중하고 있다”며 “뇌 질환에서의 GLP-1 제제 사용과 관련해 큐어 파킨슨재단, 미국 국립보건원(NIH), 존스홉킨스대학 등과 연구 협업도 진행하고 있”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막을 올린 BIX2024는 한국바이오협회와 리드엑시비션스코리아가 주최하는 바이오산업 행사로 12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GC셀 등 국내 기업과 스위스 론자, 미국 카탈란트 등 15개국에서 25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 참관객들에게 바이오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모색의 장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창립 80주년 앞둔 제약바이오協 ‘비전 2030’ 수립

이관순 미래비전위원장 주재로

산업 내·외부 전문가 과제 논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내년 창립 80주년을 계기로 산업 방향을 제시할 ‘제약바이오산업 비전 2030’을 수립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9일 서울 강남구 안다즈호텔에서 협회 창립80주년기념사업 추진 미래비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미래비전위원회는 제약바이오산업의 핵심 분야별 화두를 담은 ‘혁신포럼’ 개최 등을 통해 산업 비전을 창립 80주년 기념식 때 선포할 계획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

노연홍(왼쪽 다섯 번째) 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이재국(네 번째) 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이관순(일곱 번째) 지아이디파트너스 대표(미래비전위원장), 이병건(여덟 번째) 지아이이노베이션 대표, 황만순(열한 번째)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등 관계자들이 9일 서울 강남구 안다즈호텔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창립80주년기념사업 추진 미래비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제약바이오협회

JW중외, 제핏과 대사질환 신약개발 맞손

‘제브라피쉬’ 신약 후보물질 연구

JW중외제약은 열대어 ‘제브라피쉬(zebrafish)’ 모델 전문 비임상시험기관 제핏과 대사질환 신약개발 관련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JW중외제약은 대사질환 신약 후보물질 연구에 제핏의 제브라피쉬 모델을 활용한다. 제핏은 유전자 편집기술을 적용한 대사성질환 맞춤형 제브라피쉬 모델과 약물 스크리닝 플랫폼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새로운 기전의 혁신신약 후보물질 발굴이 목표다. JW중외제약은 인공지능(AI) 기반 연구개발(R&D) 플랫폼 ‘주얼리’에서 도출한 초기 유효 화합물을 제핏에 전달하며, 제핏의 스크리닝 플랫폼을 통해 해당 화합물들의 잠재적 치료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제브라피쉬는 열대 어류로 인간과 유전적 구조가 80% 이상 유사해 포유류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비임상 중개연구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신약개발 초기 단계에서 유용하며, 유효성·안전성 검증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다.

박찬희 JW중외제약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제핏과의 협력으로 새로운 기전의 대사성질환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50년 변함없는 추억의 맛… 해외 30國서도 '배불뚝' 열풍

장수 K푸드 ⑩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당시 고급과일 '바나나' 향 첨가
작년까지 누적 판매 95억개 돌파
모양은 韓 전통 달 항아리서 영감
2004년 美 수출… 中서도 '불티'

빙그레 '바나나맛우유'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과거 고급 과일로 대접 받던 바나나를 활용, 맛과 영양을 동시에 갖춘 국내 가공우유 대표 브랜드로 성장했다.

10일 빙그레에 따르면 바나나맛우유는 1974년 6월 탄생했다. 출시 이후 가공유 시장에서 줄곧 1위를 차지, 지금도 독보적인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바나나맛우유는 국내 바나나우유 시장에서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판매 개수는 약 95억 개를 돌파했다. 하루 평균 80만 개씩 팔리고 있다.

바나나맛우유는 1970년대 정부의 낙농업 육성을 위한 우유소비 장려 정책에 따라 개발됐다. 당시 정부가 우유 소비를 적극 장려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흰 우유에 대해 정서적·신체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여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빙그레의 전신인 대일유업은 누구나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우유 개발을 고민했고, 당시 고급 과일이던 바나나를 우유에 넣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바나나맛우유가 꾸준히 인기를 누린 것은 지금껏 한 번도 바꾸지 않은 배불뚝이 모양의 달 항아리 용기가 큰몫을 했다. 당시 우유 용기의 주류였던 유리병과 비닐팩 등과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지금의 폴리스티렌 용기로 만들어졌다. 용기 모양은 한국 고유의 전통 달 항아리에서 영감을 얻었다. 마실 때 용기를 약간 기울이더라도 내용물이 흐르지 않도록 입구 부분에 턱을 만들고, 바나나 원물의 노란색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반투명으로 제작했다. 빙그레는 2016년에 바나나맛우유 용기 모양을 상표권 등록까지 했다.

바나나맛우유의 인기는 해외까지 확산되고 있다. 2004년 미국 수출을 시작으로 현재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30여 개 국가에 판매 중이다. 바나나맛우유는 2008년 진출한 중국에서 특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진출 초기 중국은 우유 시장이 작고 가공유 시장은 거의 형성되지 않아 바나나맛우유의 성공 가능성을 장담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편의점, 백화점 등 유통망을 늘리고 소비자 접점을 넓힌 전략이 주효했다. 빙그레는 중국에서 로손, 패밀리마트,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과 접촉했고 약 6개월간 협상 끝에 로손에 초기 50박스를 납품했다.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100박스, 그 다음주 1000박스 등 주문 물량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이후 빙그레의 생산량이 중국의 주문을 따라가지 못해 결국 같은 해 생산설비까지 늘렸다.

빙그레는 올해 수출국을 늘리는 한편 주요 유통 채널 입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50주년을 맞아 국내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기념 패키지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바나나맛우유는 50년 세월 동안 국내 대표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고객의 큰 사랑을 받아, 국내 시장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며 "항상 소비자들에게 친숙하면서도 새로운 브랜드로 다가가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현호 기자 m2h@

도미노 "신메뉴 K-Rib&치즈피자, 더 맛있게 손봤다" 도미노피자는 1일부터 시작한 '손(SON) 봤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름 신제품 '케이 립(K-Rib)&치즈피자'를 12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제품은 한국식 스테이크에 데미그라스 소스로 맛을 더한 K-Rib 스테이크와 전속모델 손흥민 선수의 시그니처 포즈를 형상화한 '쏘니(Sonny)' 큐브 치즈가 올라가 달콤함과 짭짤한 맛이 특징이다. 미트 크럼블로 풍성함을, 아라비아타 소스로 매콤함을 살렸다. 도미노피자는 출시일에 맞춰 '피자 연구원 손흥민'이라는 주제로 손 선수와 촬영한 TV 광고도 선보인다. 사진제공 도미노피자

"맵싸한 진주고추·부드러운 크림치즈… 버거와 찰떡"

맛보니 맥도날드 신메뉴

올해 '한국의 맛' 선정 3종 선봬
메인 '진주 고추 크림치즈 버거'
맥피즈도 여름철 인기몰이 기대

"진주 고추로 만든 장아찌의 감칠맛, 햄버거 통해 느껴보세요."

한국맥도날드(맥도날드)가 올해 '한국의 맛(Taste of Korea)' 핵심 재료로 '진주 고추'를 택했다. 맥도날드는 10일 맥도날드 신사역점에서 미디어 행사를 열고 한국의 맛 신메뉴 3종 △진주 고추 크림치즈 버거 △진주 고추 크림치즈 머핀 △영동 샤인머스캣 맥피즈를 공개했다. 한국의 맛은 국내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개발하는 신메뉴 프로젝트다. 맥도날드는 올해 4차를 맞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21년 '창녕 갈릭 버거'를 시작으로 2022년 '보성 녹돈 버거', 2023년 '진도 대파 크림 크로켓 버거' 등을 선보였다.

올해 메인 메뉴로 내세운 진주 고추 크림치즈 버거는 경남 지역의 햇볕을 맞고 자란 고품질 진주 고추를 활용한 제품이다. 진주 고추를 장아찌로 재가공한 후 크림치즈와 조합한 진주 고추 크림치즈가 핵심이다. 여기에 진주 고추 홀스래디쉬 소스를 더해 순쇠고기 패티 풍미도 극대화했다. 이날 맛본 제품엔 순쇠고기 패티 2장에 베이컨, 토마토, 양상추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베이컨과 토마토 사이에 발린 진주 고추 크림치즈를 자세히 보니 다진 고추가 섞여 있었다. 맥도날드는 버거 1개당 고추 4분의 1가량이 있다고 했다.

10일 모델들이 '진주 고추 크림치즈 버거'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맥도날드

고추의 매콤함을 기대하며 한입 크게 베어 먹었는데, 예상외로 고소하고 부드러운 감칠맛이 컸다. 생고추가 아닌 장아찌를 만들어 매운맛이 강하진 않았던 것. 또 소고기 패티가 2개 들어간 데다 베이컨까지 더해져 고기 풍미도 상당했다. 자칫 느끼할 수 있는 맛은 고추와 토마토가 상큼하게 잡아줬다. 이충희 맥도날드 메뉴팀 컨설턴트는 "매운맛은 개개인이 느끼는 편차가 커, 너무 맵지 않도록 장아찌를 활용해 감칠맛을 올리고 고소한 크림치즈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맥도날드는 한국의 맛을 고객이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도록 올해는 아침 메뉴 '진주 고추 크림치즈 머핀'도 선보였다. 잉글리시 머핀 사이에 치킨 패티, 토마토를 넣었고 진주 고추 크림치즈가 들어간다. 고소한 치킨 패티와 알싸한 고추 크림치즈 조합이 꽤 부드러웠다. 토마토 산미가 더해져 가벼운 아침 한끼로 제격이었다. 이날 3가지 신메뉴 중 사실 '영동 샤인머스캣'을 사용한 탄산음료 맥피즈가 가장 입맛에 맞았다. 달콤하면서 상큼한 샤인머스캣의 맛이 담긴 청량음료로, 올여름 인기몰이가 기대됐다. 양형근 맥도날드 대외협력담당 이사는 "진주 고추는 캡사이신 함유량이 높고 과피가 두꺼워 식감이 아삭한 데다, 깔끔한 매운맛이라 버거와 잘 어울린다"며 "이번 신메뉴가 진주 지역에 대한 소비자의 애정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42@

C커머스 가품 문제 커지자… K커머스, 내부 단속 강화

작년 1~8월 적발 건수 13.8만건
G마켓·11번가, 모니터링 총동원

연일 '가품(짝퉁)' 문제가 불거지고있는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가 최근 잇달아 자정 노력에 나서고 있다. 비단 C커머스 뿐만 아니라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도 가품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지적에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작년 1~8월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 위조상품 유통 적발 건수는 13만8548건에 달했다. 한 달에 1만7000여 건씩 적발된 셈인데 1년 치로 추산하면 약 21만 건이다.

10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알리)는 한국상품 전문관 K베뉴(K-Venue) 상품에도 '가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K베뉴 상품 취급 수가 가파르게 늘자 한국 셀러(판매자)의 가품 판매 우려가 커진 탓이다. 이에 알리는 중국 셀러와 동일하게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기반 스크리닝 시스템을 활용, 텍스트 정보·이미지내 텍스트, 이미지 등을 식별해 가품을 걸러낸다. 또 셀러의 사업자등록증과 브랜드속성 기반으로 상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K베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나 브랜드에서 가품을 신고할 경우, 별도의 모니터링 후 환불 및 제품 차단 등을 실시한다.

최근 문을 연 서울 성수동 팝업스토어에서 가품 논란을 일으킨 쉬인도 지식재산권(IP) 보유자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조사기간 동안 상품을 플랫폼에서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쉬인은 가품을 사전 감지하고 판매를 막기 위한 인프라에도 지속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테무 역시 모니터링 강화 등 가품 판매 방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 이커머스도 최근 부쩍 가품 모니터링 등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G마켓은 위조품 필터링 시스템을 활용, 하루 90만 건이 넘는 상품을 모니터링 중이다. 검색 명칭부터 가격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위조품 유통을 사전 차단한다. 또 상품 데이터베이스(DB) 기반으로 정품을 검증하는 딥러닝, 광학문자인식(OCR) 기술 등도 단계적 도입 중이다. SSG닷컴은 품질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금지 단어, 인증 정보 등에 대한 자동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과 등비전 딥러닝 기술을 통해 하루 평균 56만 개, 월 평균 1600만 개 상품을 살피고 있다. 11번가도 사전 필터링과 사후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다. 위조품 다빈도 적발 브랜드에 대해선 집중 모니터링을 상시 운영하고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세분화된 조건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 중이다. 만약 위조품으로 확인되면 고객에게 주문금액 100%를 전액 환불하고 주문액의 10%를 11페이 포인트로 추가 적립해준다. 롯데온도 24시간 가품 알람 시스템, 셀러 입점 기준 강화 등을 운영 중이다. 특히 24시간 가품 알람 시스템에 따라 가품 가능성이 높을 경우 상품 판매를 차단한 후 판매자 정산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유승호 기자 peter@

“무형자산으로 무한성장”… 시중銀 신사업 개발비 역대 최대

AI시스템·디지털 전환 속도

5대銀 무형자산 투자액 1.3조
금감원 통계 이래 역대 최대액
신한銀 디지털 강화에 3278억
하나銀 AI 고도화 작업 2539억
비대면 수요확보 수익구조 창출

국내 시중은행이 인공지능(AI) 활용 시스템 개발 등 무형자산 투자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객 확보와 경영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 디지털 전환 작업에 주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소프트웨어·시스템개발비 등 무형자산 투자금액(연결기준)은 1조3237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3004억 원) 대비 200억 원가량 증가했다. 이는 금감원이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분기별 역대 최대 금액이다.

은행의 무형자산 대부분은 신규 전산 서비스 등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된 비용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시스템개발비로 구성됐다. 금융사가 얼마나 전산 서비스에 자금을 투자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무형자산이 증가한 것은 은행들이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관련 부분 투자를 늘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의 무형자산은 3278억 원으로 5대 은행 중 가장 많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83% 증가했다. 올해 초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쓴 영향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초 AI 은행원의 금융 서비스에 체크카드, 보안카드, 증명서 발급 등을 추가해 가능 업무를 기존 56개에서 64개로 확대 적용했다. 서비스 확대 적용과 함께 ‘스마트 키오스크’에서도 AI 은행원을 만나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지난해 1분기 3031억 원에서 올해 1분기 3104억 원으로 2.41% 증가했다. 농협은행은 2020년부터 디지털 금융 플랫폼 전환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5년 2월까지 신기술 기반의 클라우드 인프라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대고객 서비스를 전면 재구축할 계획이다.

5대 시중은행 무형자산
(단위 : 억원)
※ 무형자산 : 개발비, 컴퓨터소프트웨어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22년 3월 말	2023년 3월 말	2024년 3월 말
국민	3056	3494	2655
신한	1691	2713	3278
우리	1583	1360	1660
하나	2243	2405	2539
농협	2773	3031	3104
합계	1조1346	1조3004	1조3237

2021년 금융권 최초로 AI 대출을 개발해 출시한 하나은행은 2405억 원에서 2539억 원으로 5.54% 무형자산을 늘렸다. 올해 상반기에는 내부 업무에도 AI 기술 적용을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중이다. 보이스피싱 관련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탐지에도 AI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중 개발비를 가장 많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1360억 원) 대비 22.08% 증가한 1660억 원을 기록했다.

국민은행은 유일하게 자산을 줄였다. 지난해 2655억 원을 컴퓨터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쓰며 전년 동기(3494억 원) 대비 24.02% 감소했다. 국민은행 내 펀드 서비스부가 KB펀드파트너스로 물적분할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의 무형자산은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은행 수장들이 디지털 전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서비스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5대 은행의 하반기 경영전략 주요 키워드는 ‘디지털 혁신’이다. 8일 진행된 신한은행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정상혁 행장은 “고객으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차별적인 솔루션과 디지털 기술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용 농협은행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디지털 경쟁력 강화는 농협은행의 생존 과제”라고 강조한 만큼 디지털 경쟁력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시중은행들도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투자에 힘을 쏟고 있다”며 “플랫폼 강화로 통해 비대면 수요를 확보해 효율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jsw@

설계사 국민연금 의무가입 재추진에… 업계 “독이 든 성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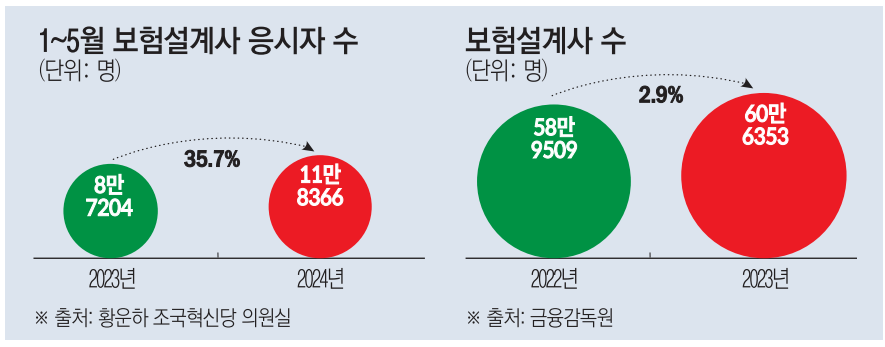
野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의무적용 시행땐 GA 비용부담↑
구조조정 불가피…도입 신중해야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이 다시 살아나면서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속 설계사 조직을 위해 보험업계가 매년 최대 수천억 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조직 감축, 구조조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있는 보험설계사, 배달 노동자 등도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두 법안 모두 보험설계사 등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에서 착안했다. 이들 근로자들은 2022년부터 고용보험 직장가입 대상에 들어갔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는 포함되지 않는 상태다.



1~5월 보험설계사 응시자 수
(단위: 명)
8만 7204 → 11만 8366 (35.7%)
2023년 2024년
※ 출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

보험설계사 수
(단위: 명)
58만 9509 → 60만 6353 (2.9%)
2022년 2023년
※ 출처: 금융감독원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의무적용이 시행될 경우 보험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의 비용부담이 최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보험설계사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험설계사는 60만6353명으로, 1년 새 2.9% 증가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보험설계사 응시자는 11만8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7% 늘었다.

증가하는 설계사들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적용으로 부담을 느낀 보험사가 향후 영업조직 구조조정 카드를 선택할 수도 있는 만큼 법안 도입에 앞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은 고용조건이 일반 근로자들과 다른 만큼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월 소득이 100만 원이 넘지 않는 이름만 등록된 설계사들도 많아 이들을 어떤 기준으로 발라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2년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면서 회사에서 비용이 늘었는데 건강보험이나 연금은 인당 금액이 더 커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설계사 조직 구조조정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재은 기자 dove@

상반기 밸류업 공시 10건… 저PBR 증권·은행 주도

올해 상반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건수가 10건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힘입어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매입과 소각도 크게 늘었다.

10일 한국거래소는 ‘2024년 상반기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시장동향’을 발표했다. 상반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4건, 예고 공시는 6건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키움증권, 콜마홀딩스, 메리츠금융지주, 코스닥시장에서는 에프앤가이드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KB금융을 시작으로DB하이텍, 우리금융지주, HK이노엔, 콜마비앤에이치 등은 예고공시를 했다. 제도 시행 초기에 키움증권(PBR 0.64배), KB금융(0.46배), 우리금융지주(0.33배), 메리츠금융지주(1.65배) 등 저PBR(주가순자산비율)인 증권·은행 업종의 밸류업 공시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주주환원에 대한 시장참여자 및 기업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상반기 자기주식 매입은 전년 동기 1조8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으로 25.1% 증가했다. 자사주 소각은 2조4000억 원에서 7조 원으로 190.5%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아(5000억 원), 쌍용C&E(3350억 원), 크래프톤(1992억 원) 등이 자사주를 매입했고, SK이노베이션(7936억 원), 삼성물산(7676억 원), 메리츠금융지주(6400억 원) 등이 자사주를 소각했다.

상반기 상장기업 배당액은 34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32조9000억 원) 대비 3.7% 소폭 증가했다.

거래소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3분기에 개발하고,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4분기에 개발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기업설명(IR)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상장기업 대상 간담회 및 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해외주식형’으로 머니무브 상반기 펀드 7.9兆 ‘뭉칫돈’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개별주식 뿐 아니라 주식형펀드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펀드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펀드 순자산총액은 지난달 말 기준 1069조5000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말 대비 98조1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전통자산에 투자하는 주식형(18조6000억 원)과 채권형(18조7000억 원) 펀드의 성장이 두드러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해외주식형 펀드에 7조9000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되며 순자산총액은 전년 말 대비 39.4% 증가한 56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열풍 속 반도체주의 가치가 크게 오른 데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기가 비교적 연착륙하고 있어 투자심리가 견조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14조4000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돼 순자산총액이 전년 말 대비 13.1% 증가한 149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에 따라 국내 금리 인하 전망이 확대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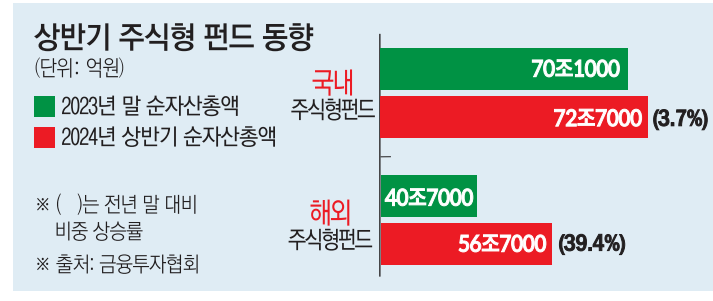
공모펀드의 성장은 상장지수펀드(ETF)가 주도했다.

실제 주식형 및 채권형 공모펀드는 2020년 말 대비 순자산총액이 각각 35조4000억 원(49.0%), 24조7000억 원(74.1%) 성장했는데, 대부분 ETF가 성장을 견인했다. ETF를 제외하면 같은 기간 주식형 공모펀드는 2조 원 수축했고, 채권형 공모펀드는 1조3000억 원 소폭 증가하는 등 성장이 정체됐다.

주식형 ETF에서도 해외주식형의 자금 쏠림 현상은 두드러졌다. 올해 6월 말 해외주식형 ETF의 순자산총액은 28조3000억 원으로, 주식형 ETF에서 41%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20년 말 1조6000억 원으로 비중이 약 5%에 불과했던 것과 대조된다.

또 투자자들은 여전히 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등)을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형 위주로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원리금보장형이 333조3000억 원으로 약 87.2%를 차지했고, 실적배당형은 49조1000억 원(12.8%)에 불과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상반기 주식형 펀드 동향
(단위: 억원)
■ 2023년 말 순자산총액
■ 2024년 상반기 순자산총액
※ ( )는 전년 말 대비 비중 상승률
※ 출처: 금융투자협회

	2023년 말	2024년 상반기
국내 주식형펀드	70조1000	72조7000 (3.7%)
해외 주식형펀드	40조7000	56조7000 (39.4%)

‘고정 vs 변동’ 끝모를 주담대 고민… 오늘 금통위 촉각

예비차주들이 11일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실상 동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금리 인하 시점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 시기 등 시장 상황이 복잡하게 엮이면서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앞둔 차주들이 고정형과 변동형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시기의 경우 주담대 특성상 0.1% 금리 차이에도 이자비용이 크게 차이 나는 만큼 심사숙고를 거듭하는 모습이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주담대 가운데 고정금리(혼합형, 5년 고정 후 변동)는 연 2.86~5.68%, 변동금리는 연 3.80~6.62% 선에서 형성돼 있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 보다 상단과 하단이 모두 0.94%포인트(p) 낮다.

당장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 입장에선 금리가 더 낮은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5대 시중은행의 고정금리가 변동금리 보다 1%p 가량 아래이기 때문에 현재 주담대 신규를 받는 대다수 차주들이 고정금리를 선택하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정금리 위주로 금리 운영방안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주담대 고객 10명 중 9명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를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도적으로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낮추는 상황이다. 지난해 대출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차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됐다. 이에 정부는 고정형 주담대 공급을 확대해 가계부채의 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시중은행에 자체 고정형 주담대 목표비율을 30%로 설정하는 내용을 행정지도 중이다.

하지만, 향후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은행 창구에서는 변동형 주담대에 대한 질문도 쇄도하고 있다. 고정형 주담대는 금리 인하 여부에 상관없이 5년 동안 금리가 유지된다. 반면,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변동형 주담대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낮아진 금리가 반영돼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금 당장 대출을 받는다면 고정형 주담대가 더 유리하지만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변동형 주담대 상품의 금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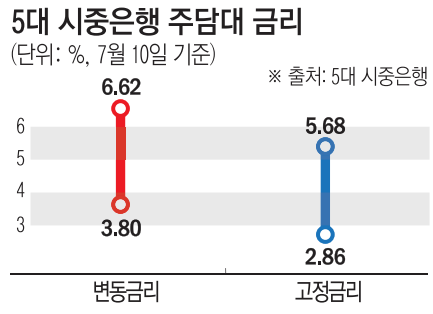
11일 예정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3.5%)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해 2월 이후 12회 연속 동결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완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연초보다 확대됐고,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커진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에선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는 이르면 9월, 한은은 10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은행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차주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B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금리가 상승 전환할 수 있다”면서 “막연한 금리인하의 기대감 보다는 당국의 여러 정책들을 살피면서 주담대 시기와 조건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고정형 금리가 변동형보다 1%p ↓

차주 10명 중 9명은 ‘고정형’ 선택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유력

“곧 인하” 은행창구 변동형 문의 늘어

전문가 “정책 기조·금리인하 시점 등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판단해야” 조언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 놓고 갈등 빚더니…

보험-카드사, 돌연 협업 나선 까닭은

카드업계와 보험업계 간의 해묵은 갈등 중 하나인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의무화가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카드사와 보험사가 각자 보유한 고객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협업을 이어가면서 기대감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우리카드는 DB손해보험과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플랫폼 ‘우리카드 보온’을 출시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우리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시 최대 2%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간 대면으로 중대재해배생보험을 가입할 경우 각종 서류 제출 후 보험료를 알 수 있었지만, 우리카드 보온을 통한 비대면 가입은 온라인으로 보험료를 실시간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다.

지난달 롯데카드는 라이나생명·메리츠화재와 함께 보험료를 월 최대 2만5000원까지 할인해주는 ‘보험엔로카’ 2종을 선보였다. 각 카드로 라이나생명 및 메리츠화재 보험료를 매달 자동이체 하면 지난달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두 업계가 보험료 카드납부와 관련해 협업을 이어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과거 카드업계와 보험업계는 보험료 카드납을 두고 의견 대립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1%대로 내려야” “더는 못내려”

보험료 카드납 의무화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신경전 벌여와

최근 ‘협업 상품’ 출시 잇따라

지불 편의성 개선 시너지 노려

보험업계에서는 카드납 의무화가 곧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현재 2%대로 책정 중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1%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카드사들은 수익성 유지를 위해 더는 내릴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 결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보험료 카드납 의무화를 위한 법안은 지속해서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료 카드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보험사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보험료 카드납부는 저조한 상태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1분기 생보사들의 카드납 지수는 3.8%로 전분기(4.1%)보다 0.3%포인트(p) 하락했다. 자동차보험 등 납부 기간이 비교적 짧은 손해보험사의 경우 카드납 지수는 30.5%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장기 납입 보험의 카드납 지수는 장기보장성보험 15.7%, 장기저축성보험 3.3%에 불과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두 업계 간 협업 기조가 형성되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자가 보유한 고객을 통해 모집 비용과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고객의 지불 결제 편의를 위해서라도 보험료 카드납부는 필연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카드사 관계자는 “보험사와 카드사가 수많은 과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양 업계가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및 고객 확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며 “고객 확충과 만족도 향상, 카드사의 신용판매 증가 등으로 윈윈(win-win)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jsw@

신한은행, 창립 42주년 기념 ‘언제든 적금’ 출시

최고금리 연 7.7%…선착순 20만좌

신한은행은 창립 42주년을 기념해 고객 지향적 관점으로 새롭게 만든 신상품 ‘언제든 적금’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언제든 적금은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는 1년 만기 자유적금이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 누구나 가입 할 수있다. 기본이자율 연 4.2%에 우대이자율 최고 연 3.5%포인트(p)를 더해 최고 연 7.7%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우대금리 연 3.5%p는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정기예·적금, 주택청약상품을 모두 보유하지 않은 고객에게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언제든 적금’을 창립 42주년 기념으로 출시하면서 창립기념일이 ‘7월 7일’인 것에 착안해 최고 이자율을 7.7%로 정했다.

언제든 적금은 오는 12월 19일까지 선착순 20만 좌 한도로 판매된다.

언제든 적금은 12개월 적금임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중도해지 하더라도 중도해지이자율이 아닌 가입일 당시 약정이자율로 이자율이 적용된다. 고객 입장에서는 이자율 적용에 있어 유리한 만큼 부담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달 31일까지 ‘언제든 적금’을 신규 가입하고 신한 쏠(SOL)뱅크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77만 마이신한포인트(7명) △7만 마이신한포인트(777명)를 제공하고 응모한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땡겨요 3000원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김범근 기자 nova@

토스, CU멤버십 사후 적립 서비스 론칭

‘CU멤버십’ 연동 110만명 돌파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내 멤버십 모아보기’ 서비스에 ‘CU멤버십’을 연동한 고객이 110만 명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내 멤버십 모아보기는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다양한 멤버십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CU멤버십을 포함, 총 7개의 멤버십 포인트 조회가 가능하다. 멤버십별로 결제일과 결제처, 그에 따른 포인트 적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는 CU멤버십에 한해 사후 적립 기능도 추가로 구현했다. 해당 기능을 통해 CU 편의점에서 결제 시 포인트를 적립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토스 앱을 통해 적립 가능하다.

사후 적립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 멤버십 모아보기 메뉴에 CU멤버십 연결이 필요하다. 결제 시 CU멤버십 회원이 아니었더라도 이후 CU멤버십 가입 후 연동을 진행하면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적립 대상 내역은 토스 앱 내 ‘내 소비’ 내역(계좌 및 유스카드 결제 제외)을 기준으로 한다. 총 14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의 결제 내역에 대해 적립 가능한 CU포인트가 있는 경우, 내 멤버십 모아보기-CU-받을 포인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DB손보 “반려동물 피부·치아질환까지 보장해 드려요”

‘펫블리 보험’ 보장 확대

DB손해보험이 ‘펫블리 반려견·반려묘 보험’에 피부질환과 치과질환 등 반려동물 다빈도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확대하는 상품 개정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펫보험은 사람의 실손의료비 상품과 같이 동물병원에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한 보장이 가장 주된 내용이다. 반려동물로 인한 배상책임과 반려동물 사망 위로금 등을 보장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에 면책이었던 치과치료와 아포퀠 등 특정피부약물치료에 대해 상품 개정으로 인해 특약 가입 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아포퀠 등 특정피부약물치료에 대한 보장은 연간 보장 횟수 제한이 없어서 가입자들의 보장의 폭을 넓혔다.

신규 할인 제도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적용됐다. 다둥이 할인 5%, 유기 동물 입양 시 3% 할인이 추가돼 기존 동물등록증 제출 2% 할인과 합산해 최대 10% 보장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김재은 기자 dove@

새로워진 비비고
세계를 더 맛있게

bibigo 비비고

Live Delicious

‘삼천피 외끌이’ 하는 BIG10… 코스피 시총 절반 차지

증시, 대형株 쏠림현상 가속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덩치 큰 빅테크주가 미국과 글로벌 증시를 주도 하고 있다. 국내 증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기아 등 이른바 ‘반차’ (반도체,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비중이 절반에 달할 정도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삼성전자·SK하이닉스·LG에너지솔루션·현대차·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전자우·기아·셀트리온·KB금융·POSCO홀딩스)의 합산 시총은 1109조 원(9일 기준)이다. 이는 코스피 전체 시총 2339조6890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47.4%에 이른다.

연초 상위 10개 종목의 합산 시총은 982조 원이었으나 7개월 새 시총이 빠르게 불어나며 1000조 원과 1100조 원을 잇달아 넘어섰다. 상위 10개 종목이 코스피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연초 45.7%에서 47.4%로 1.7%포인트 높아졌다. 코스피시장 종목수가 연초 953개에서 현재 954개로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총 상위 10개 종목으로의 쏠림현상이 매우 짙어진 셈이다.

코스피 시가총액

	연초	7월 9일
시가총액(억원)	2147조2240	2339조6890
종목수(개)	953	954
시총상위 10개 종목 합산(억원)	982조720	1109조10
코스피 내 시총상위 10개 종목 비중(%)	45.7	47.4

※ 출처: 한국거래소

시총 상위 10종목

순위	종목명	시총(억원)	시총 비중(%)
1	삼성전자	524조1470	22.4
2	SK하이닉스	173조6290	7.42
3	LG에너지솔루션	84조9420	3.63
4	현대차	57조4850	2.46
5	삼성바이오로직스	56조6550	2.42
6	삼성전자우	56조6150	2.42
7	기아	48조9830	2.09
8	셀트리온	40조6210	1.74
9	KB금융	34조3790	1.47
10	POSCO홀딩스	31조5450	1.35

쏠림현상은 이차전지 열풍이 불었던 작년보다도 심화했다. 이차전지 대표주인 LG엔솔이 작년 중 최고가(6월 12일, 종가 61만2000원)를 기록했던 당시,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합산 시총은 968조387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밑돌았다.

시총 1위 삼성전자는 올해 시총이 48조9520억 원 늘며 10% 증가했다. SK하이닉스는 69조9610억 원 증가하며 무려 67%나 늘었다.

KB금융(59%), 현대차(36%), 기아(25%), 셀트리온(20%), 삼성전자우(9%), 삼성바이오로직스(1%) 등 대부분 종목의 시총이 증가했다. POSCO홀딩스(-24%)와 LG에너지솔루션(-15%)만 시총이 줄었다.

상위 10곳 합산 시총 1109조
시총비중 45.7%→47.4% 올라
美·日 증시도 대형주 중심 상승
산업 양극화·증시 거품 등 우려

외국인의 매수세도 더해졌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0조7840억 원, 3조6700억 원 사들였다. 현대차(3조2970억 원)와 기아(9530억 원), 삼성전자우(1조4720억 원), KB금융(5940억 원), 삼성바이오로직스(4660억 원)도 순매수했다.

시총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코스피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외환 위기 이후인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00년대 초반에는 64% 수준까지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대체로 이 비율이 30% 선에 머물렀는데, 지난 2020년부터 40% 수준을 넘기 시작했다.

대형주 쏠림 현상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S&P500 시총 상위 5개 종목의 비중은 29.7%(5일 종가 기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위 3개 종목인 마이크로소프트(3조4800억 달러), 애플(3조4700억 달러), 엔비디아(3조1000억 달러)의 비중은 20.6%에 달한다.

세계 2위 규모인 일본 증시에선 반도체, 금융, 인공지능(AI), 종합상사 등 대형주 주가가 크게 올랐다.

시장에선 현재 진행형인 글로벌 경기(산업) 양극화가 반영됐다거나 대세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대형주 쏠림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거품 조짐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광혁·우혜영 LS증권 연구원은 “경제에 있어서 전반적인 성장이 아닌 쏠림 현상에 의한 성장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분야의 부진이 전체 경제를 예상치 못한 부진으로 이끄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는 민간과 기업 중 기업으로, 수출과 내수 중 수출로, 국가 중에는 미국으로, 업종으로는 반도체 업종으로 지나친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반기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가정에는 반도체 경기의 호조 지속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가정이 깨질 경우 경제성장 전반의 예상이 어긋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명간·황지애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 기존 주도 업종들의 강세와 쏠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조준기·박유진 SK증권 연구원은 “지수 추가 상승의 관건은 쏠림 여부의 해소될 수 있을까에 달렸다”고 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S&P “韓, 화학·이차전지·철강 신용위험 확대”

SK, LG 등 국내 주요 그룹사들이 레버리지(차입) 리스크를 짊어지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는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지만, 벼랑 끝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10일 ‘한국 기업 전망 : 성장 이전의 고통’ 보고서를 내고 “수출 중심의 중간 규모 시장에 기반을 둔 한국 기업들은 무역 전쟁과 공급망 차질에 크게 노출됐다. 이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홍 S&P 상무는 “성장을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는 분위기가 한국 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들의 신용등급 추이가 다소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채권 투자자들의 리스크 익스포저(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기업 전망 보고서
기업들 위험 감수하고 공격투자
채권 투자자 리스크 익스포저↑

이어 “다수 기업의 투자와 레버리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신제품 출시 또는 신사업 진출과 맞물려 수익증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며 “SK하이닉스의 경우처럼 리스크 감수가 큰 보상으로 이어지는 일도 있지만,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처럼 공격적인 사업 확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SK그룹은 반도체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 외에도 이차전지 및 소재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그룹 내 주요 계열사의 차입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제열 S&P 이사는 “한국 기업들의 최근 리스크는 비지니스 펀더멘털 강화를 위한 노력이 재무지표 약화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짚었다.

S&P는 국내 전기차 산업이 투자와 성장 간의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봤다. 이차전지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여전히 밝지만,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 전기차와 배터리의 매출 성장률이 예상을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S&P는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의 레버리지 비율 상승 위험을 주목했다. 양사 모두 이차전지와 이차전지 소재 생산설비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지만, 글로벌 매출 성장이 둔화하는 흐름이다.

박 상무는 “현재 한국 기업들의 신용도는 섹터별로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부문은 견조한 실적을 지속하겠지만 화학, 이차전지, 철강 부문은 신용지표 압박이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회인 기자 hihello@

국내 연금시장 달구는 ‘RA 자산관리’

〈로보어드바이저〉

글로벌 금융시장에 인공지능(AI) 붐이 불면서 국내 로보어드바이저(RA)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부터 RA가 퇴직연금 일임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RA 전문 업체간 경쟁도 활발해지고 있다.

10일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회사의 전체 RA 계약자 수는 31만1993명으로 지난해 말(29만2532명) 대비 1만9461명 증가했다. 이중 투자일임 계약자 수는 14만5815명에서 15만2810명으로 늘어났다.

테스트베드를 통과해 상용 서비스가 가능한 알고리즘은 매일 테스트베드 센터를 통해 업데이트 되는데, RA 전문 핀테크들이 높은 기술력,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디셈버앤컴퍼니가 운영하는 AI 간편투자 플랫폼 핀트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국내 최초 RA 서비스를 출시한 핀트는 AI ‘아이작’을 통해 글로벌ETF를 시작으로 연금저축, 미국주식, 한국주식, 파킹투자 등 다양한 투자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핀트가 추천하는 테마를 참고해 고객들이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테마 투자를 출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5월 말 기준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RA 일임 서비스 이용자의 약 80%가 핀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 금액 중 58%(1706억 원)도 핀트가 운용하고 있다.

콴텍은 초개인화 자산관리 솔루션 ‘큐엔진’을 통해 투자자 성향을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추천하고 있다. 투자 이후엔 위험관리 모듈 ‘큐엑스’가 실행돼 이른바 ‘손절 타이밍’을 자동으로 잡아내는 게 특징이다.자체 개발한 미니원장 기술인 TAMS를 활용해 국내 RA 최초로 하나의 계좌에서 여러 개의 상품을 관리할 수 있다.

김효숙 기자 ssook@

‘조각투자’ 조각나나… 테사, 미술품 3건 평균 30% 손실

〈조각투자 플랫폼〉

미술품, 한우 등 조각투자 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업계가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고 있다. 10일 조각투자업계에 따르면 테사는 이달 4일부터 5월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 출품했던 기초자산 미술품 3건에 대해 매각대금을 정산한 결과, 평균 30% 손실을 냈다.

매각 작품은 페르난도 보테로의 ‘People Drinking’ (피플 드링킹), 마르크 샤갈의 ‘La mariee or Les amoureux aux fleurs’ (신부와 꽃속의 연인들), 알렉스 카츠의 ‘Red Dogwood’ (레드 도그우드) 등이다.

보테로 작품은 공모 때 자산가격 7억8000만 원보다 낮은 5억6461만 원에 정산됐다. 샤갈과 카츠의 작품도 각각 21억1737만 원(공모 자산가격 27억5000만 원). 7억577만 원(12억 원)에 매각됐다. 공모 당시 대비 23.0%, 41.2% 하락한 것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테사 측의 무리한 경매로 손실을 보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테사 관계자는 “크리스티 측에서 경매 수수료나 운송료 등 제반 비용을 면제해준다며 경매 출품을 제안했다”며 “좋은 조건이라 보고 최저·최고 추정가를 제시한 후 투자자 투표를 통해 경매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각 투자 업계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고 있다.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운영 중인 열매컴퍼니는 최근 LS전선과 함께 구리 원자재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금융당국에 신청했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5월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은 뒤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pmk8989@

KB운용 ‘KIS국고채30년 Enhanced’ 순자산 4000억 돌파

KB자산운용은 ‘KBSTAR KIS국고채30년 Enhanced 상장지수펀드(ETF)’〈사진〉의 순자산이 4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KBSTAR KIS국고채30년 Enhanced ETF는 국내 30년 만기 국고채에 투자하며, KIS채권평가가 산출하는 ‘KIS국고채30년Enhanced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1배 추종하는 ETF다.

듀레이션(채권 자금을 회수하는 평균 만기)이 24년 내외로 길어 향후 금리 하락 시 더 많은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KBSTAR KIS국고채30년 Enhanced ETF의 1년 수익률은 18.01%로, 동일 유형 85개 상품 평균(7.01%)보다 두 배를 웃도는 성과를 기록 중이다.

이 상품의 6월 말 기준 만기수익률(YTM)은 연 3.1% 수준이며, 매해 3월과 9월 분배금을 지급한다.

손민지 기자 handmin@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올파포' 300가구 풀린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보증금, 시세 대비 50% 수준
최소 10년…1자녀 출산 20년
총자산 6.55억으로 자격 완화
서울시, 연내 1000가구 공급
2026년부터 4000가구 이상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1호 물량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공급한다. 부부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해 자녀를 한 명만 낳아도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자산 기준도 개편해 총자산이 6억5500만 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Ⅱ(SHift2)는 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의 두 번째 버전이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Ⅱ는 최소 10년 간 거주를 보장하고, 자녀를 1명 출산하면 20년, 2명을 출산하면 더욱 넓은 평수로 이사하는 것을 최우선 적으로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1호 공급 물량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49㎡ 150가구는 무자녀 가구에게, 전용 59㎡ 150가구는 유자녀 가구에게 공급된다. 이달 23일부터 24일까지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입주 신청을 받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용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억5250만 원, 59㎡는 4억2375만 원이다. 이달 기준 동일 평형의 시세는 각각 6억 원대, 8억 원대로 형성되어 있어 시세 대비 최대 50% 싸게 입주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달 1일 국토부와 만나 올해 5월 내놓았던 '저출산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장기전세주택Ⅱ 선정 및 지원 기준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기준을 적용키로 협의했다.

먼저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전용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전용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도 손봤다. '총자산(부동산+자동차+일반자산+금융자산-부채)' 기준을 새롭게 도입해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이 6억5500만 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관련 약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주 이후 지원도 강화된다. 입주 후 자녀를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 및 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올해 5월 발표한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1자녀 출산가구에 대해 거주 기간을 10년→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싼 가격에 제공한다. 입주 이후 자녀 출생에 따라 가구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엔 입주 이후 10년 차부터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9년 차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20~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키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수정했다.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이후에도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광진구(자양1 177가구), 송파구(문정3 35가구), 은평구(역촌1 33가구), 관악구(봉천 18가구), 구로구(개봉 16가구) 등에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한병용 서울시주택정책실장은 "하반기까지 1000가구 이상, 2026년부터는 매년 4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추가적 공급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하반기 추가 확대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라고 설명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수도권 아파트 뛰자 아파텔도 '들썩'

서울 넘어 광교·과천 등 핵심지
몇달새 수천만원 상승 거래
5월 서울 85㎡ 초과 0.11%↑
"아파트 대체재 성격 규제 여전
상승 추세 전환 보기엔 어려워"

수도권 아파텔(주거형 대형 오피스텔) 매맷값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전고점 수준을 회복하는 등 강세를 보이자, 아파텔값이 동반 강세로 돌아섰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연희브라운스톤' 전용면적 152㎡형은 지난달 14일 9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은 지난해 10월 9억 원에 거래됐는데 8개월 만에 3000만 원 더 올랐다.

또 영등포구 '여의도자이' 전용 82㎡형은 지난달 21일 11억65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2021년 10월 최고가 14억1000만 원에는 못 미치지만, 약 3년 만에 거래에 성공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모양새다. 강동구에선 '대우한강베네시티' 전용 92㎡형은 지난달 6억5800만 원에 손바뀜됐다. 같은 평형이 지난 4월 6억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5800만 원 오른 값에 거래된 셈이다.

아파텔 몸값 강세는 서울을 넘어 경기 지역에서도 포착된다. 수원 광교신도시에 들어선 759실 규모 '포레나광교' 전용 84㎡형은 지난 5월 23일 10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같은 평형이 4월 10억35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4500만 원 비싼 금액이다.

또 과천 '힐스테이트과천중앙' 전용 84A㎡형 역시 지난 5월과 6월 각각 10억4000만 원과 9억9000만 원에 실거래됐다. 이는 2023년 4월 8억5400만 원 실거래 이후 약 일 년 만의 실거래 사례로, 가격도 최고 1억8600만 원 오른 수준이다.

이렇듯 수도권 핵심지 아파텔 몸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통계에서도 대형 오피스텔의 매맷값 상승세가 확인됐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오피스텔값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5월 기준 '전용 85㎡형 초과' 오피스텔값 상승률은 0.11%로 집계됐다. 5월 다른 평형이 모두 매맷값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과 정반대로 나 홀로 강세를 보였다. 수도권 기준으로도 5월 전용 85㎡형 초과 오피스텔 매맷값 변동률은 -0.02%로 다른 평형과 비교해 낙폭이 가장 작았다.

다만, 오피스텔은 각종 규제가 여전하고 아파트 대체 상품 성격이므로 최근 아파텔값 상승세를 본격적인 추세 상승 전환으로 보긴 이르다는 의견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아파트값이 오르면 아파텔값도 일부 회복하겠지만, 아파텔은 틈새 상품이자 아파트 대체재 성격이 짙다"며 "아파텔은 상업 지역에 많이 지으니 입지가 좋지만, 주거 쾌적성이 떨어지고 학군도 안 좋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특히, 아파텔은 오피스텔 규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정부가 이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아파텔 정도 규모는 오피스텔이지만, 주거용인 만큼 주택의 범위를 넓혀서 건축 심의 때 주택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시장 가격 왜곡을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수도권 아파트값 2000년 이후 연평균 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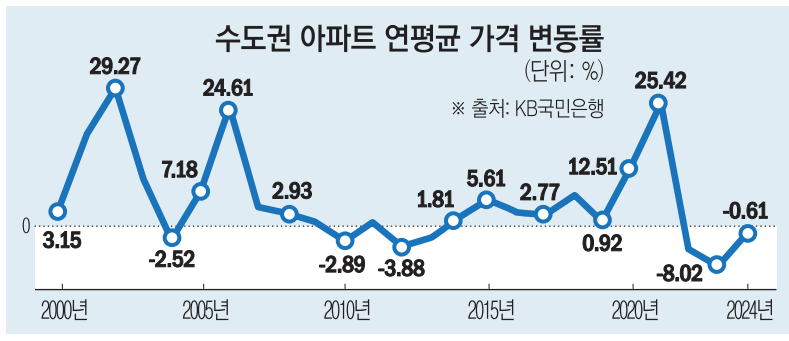
지방 상승률 3.41%의 2배

수도권 아파트가격이 매년 7%가량 오르며 지방의 두 배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와 투자 등 끊이지 않는 수요가 꾸준한 오름세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통계가 공개된 2000년 이후 연평균 6.78% 상승했다. 같은 기간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상승률 3.41%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연간 기준으로 하락한 것은 작년까지 총 24년 중 여섯 번이었다.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로 8.02% 하락했다. 이때를 제외하면 모두 5% 미만의 낙폭을 기록했다.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은 2002년으로 29.27% 상승했다. 2006년(24.61%)과 2021년(25.42%)도 25% 안팎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2020년에는 12.51% 올랐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수도권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장기적으로 집값이 우상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보규 기자 jbk@



서울 9억 이상 아파트 거래량 9870건 '역대 최다'

1~5월…송파구 1298건 최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에서 이뤄진 9억 원 이상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0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883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9억 원 이상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9870건으로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매년 1~5월 기준)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다.

서울 9억 원 이상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21년 1~5월 9608건을 기록한 뒤 2022년 3077건으로 하락했고, 2023년 6406건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9억 원 이상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송파구'로 1298건이었다. 이어 강남구 1087건, 성동구 889건, 서초구 841건, 마포구 749건, 강동구 732건으로 나타났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아파트 전셋값과 분양가가 오르고 있는 데다, 종합부동산세 규제 완화 움직임도 보이는 만큼 서울 똘똘한 한 채 아파트 매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지은 기자 hje@

현대건설, 미래 건설 선도 15개 혁신 스타트업 선정

현대건설은 공모전 '2024 현대건설 x 서울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혁신 기술을 보유한 15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건설 x 서울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은 건설 산업 내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방형 기술혁신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스타트업 육성지원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SBA)와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총 227개 스타트업이 지원했으며 서류와 대면 심사, PoC(실증사업) 사업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분야 6개 △디지털 헬스케어분야 1개 △스마트 안전 분야 1개 △미래 주거 분야 5개 △현업 니즈 해결 1개 △스타팅 블록 1개 기업이 선발됐다.

분야별 스타트업은 현대건설과 실증사업협약 체결 후 10월 말까지 PoC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서비스에 대한 파일럿 개발, 현업 적용성 등의 검증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 선발된 기업 중 두 곳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자율제안형'과 연계해 총 1억90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스타트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스케일업, 투자유치, 인큐베이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미래건설산업 혁신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사진제공 현대건설

유흥시설 '마약' 급증하는데… 업주가 '자발적' 확인?

서울시 '마약 3중 방어체계' 확립… 내달 특별 단속

마약류 사범검거 5년간 292%↑
업소까지 처벌 법 마련했지만
강력한 처벌 없인 실효성 떨어져
"이미 온라인 전파… 시대착오적"

유흥시설 내 마약 범죄가 무서운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클럽·주점 등 유흥업소가 마약 확산의 온상이 된 지 오래지만 관계 당국의 대응은 아직 '경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8월 관련 법 개정으로 업소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1% 증가했고, 5년 새 134% 뛰었다. 올해 1~5월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393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1% 늘었다. 특히 유흥시설에서 마약을 투약한 마약사범 증가세는 더 가팔랐다. 경찰청이 클럽·유흥주점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집계를 시작한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무려 2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현재 업소 단속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날 서울시는 유흥시설을 통한 마약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 3중 방어체계'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 4000여 개 유흥시설과 협력해 '자발적인' 마약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1단계로 영업시설에 마약류 반입금지 게시문을 부착해 경각심을 부여하고, 2단계는 영업자가 배부받은 '마약 자가검사(GHB) 스티커'로 의심 가는 음료를 확인하게 한다. 마지막 3단계는 보건소 및 진료안내 포스터를 부착해 손님들이 활용하도록 홍보한다는 내용이다.

업소 관계자 및 손님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취지지만, 자발적 단속이라는 점에서 한계도 뚜렷하다. 윤흥희 남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예방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강력한 단속 및 처벌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 업소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단속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유흥시설에서 마약 사건이 발생하면 당사자만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받을 뿐, 업소는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내달 7일부터 업소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사기관이 마약을 단속하면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식품 위생에 한정됐던 행정처분 대상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업소가 마약 투약을 교사하거나 방조했을 때 처벌한다는 전제가 있어 입증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평가다.

정재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교육원장은 "아무래도 업주 입장에서는 영업정지와 마약 소굴이라는 안 좋은 인식에 대한 부담 때문에 조심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며 "완전 차단은 어렵겠지만 보고서도 못 본 척하는 일은 줄어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8월 법 시행 이후 서울경찰청 등과 협력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명, 소재지, 처분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 원장은 "상당수 마약 유통이 이미 온라인 세상으로 넘어간 지 오래라 유흥업소 단속으로 마약을 통제한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마약사범 검거 통계 말고 실제 어떤 마약이 얼마만큼 유통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전무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건 개념 정의에서부터 시작한다"며 "대마와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약이 아닌 마약류로 분류해 놓은 법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교육부 '디지털 게릴라 포럼'서 소개한 교사 활용 사례

"학생들 수업 참여도 높이고 교사 맞춤형 피드백 제공도"

외국어 말하기 부담도 크게 낮춰
AI 진단평가로 학생별 취약점 파악
학생간 상호작용·협력 보장 가능
교육부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추진
영어·수학 등 과목 내년 우선 도입

"다양한 배경과 욕구를 가진 저희 반 26명의 아이들을 모두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AI디지털교과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효과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부터 정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본격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실제 교육현장에서 AI디지털교과서(AIDT)를 활용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외국어 말하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킨 사례가 소개됐다.

10일 경기자동차과학고 허영주 교사는 교육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디지털 게릴라 포럼'에 참석해 AIDT를 활용한 영어 수업 사례를 소개했다.

허 교사는 "AIDT를 활용하면 다수의 학생들이 단순히 수업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 '참여'로 이어지도록 만들 수 있다"면서 "교사는 학생들의 참여 정도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피드백도 곧바로 제공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AIDT를 활용해 학생참여형 영어 수업을 진행한 방법을 여러 단계로 나눠 소개했다. 첫 번째 단계는 '수업 및 학습자 분석'으로, AI가 제공하는 진단평가를 학생별 취약점을 확인한다.

허 교사는 "학생들의 배경지식에 따라 AI 챗봇이 던지는 질문도 달라진다"면서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앞으로 알고 싶은 것' 등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진행해 온 학습 상태를 자가진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교수학습방법 결정' 단계다. 교사는 학습목표 달성에 학생 간 수준차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협력학습을 하기 전 개별학습을 먼저 진행할 수 있다. 여기서 AI챗봇을 활용해 학생들은 챗봇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이 같은 AIDT를 활용한 수업이 영어 말하기에 대한 부정적 감정도 감소시키고, 학생들 간 상호작용을 활발히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허 교사는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활용할 때는 표현활동을 위해 짝꿍과 서로 말하기 활동을 시켰는데, 학습격차가 나면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면서 "AIDT를 먼저 활용하면 각자 개별학습이 선행되기 때문에 짝 활동에서 학생 간 상호작용과 협력도 보장된다"고 말했다.

이후 단계에서는 학급 대시보드를 보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고, 개별 학생에게 맞는 피드백을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교사의 직감에만 의존해 개별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 대한 판단을 내렸지만, AIDT를 활용하면 개별 학습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다 학생 상황에 걸맞은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2022 개정 교육과정, AIDT 도입 등을 앞두고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슬로건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수업 혁신을 지원하는 도구로 교사가 AI 및 디지털 기술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AIDT는 2025년 초·중·고교 영어·수학·정보·국어(특수) 과목에 우선 도입될 예정이다.

정유정 기자 oiljung@

폭염과 폭우 사이… 전국 곳곳 피해 잇따라

국지성 폭염과 폭우가 동시에 전국을 강타했다. 10일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됐고 충청권과 전라권에서는 새벽 기습 폭우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터널분수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폭우로 전북 완주군 운주면 엄목마을 앞 비닐하우스가 처참하게 무너져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연합뉴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도이치 공범 '임성근 구명 로비'?… 녹음파일 공개 '일파만파'

공수처, 김 여사 연관 등 수사 전망
"임 사단장 진급" 인사 개입 의혹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에 나섰다는 녹음 파일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도 실제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김건희 여사가 연관돼 있는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와 공익제보자 A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확보해 조사 중이다. 해당 녹취록에는 지난해 8월 이 전 대표가 'VIP한테 얘기해 임 전 사단장을 지켜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A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임 사단장을 진급시켜 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 연결된 인물이라는 점이 인사 개입 의혹을 키우고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오전 '채상병 사건 원인 규명 카페'에 입장문을 내고 '구명 로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28일 오전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결재한 시점은 지난해 7월 30일이고, 결재를 번복한 시점은 지난해 7월 31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에 의해 소위 '임성근 구명 로비'가 있었다면 늦어도 이전 장관이 결재를 번복한 지난해 7월 31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사의 표명 사실은 지난해 8월 2일경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 전후로 어떤 민간인에게도 그 사실을 말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가 A 변호사와 통화한 시점이 지난해 8월 9일이기 때문에 시기상 구명 로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또 "이 전 대표와 한 번도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사령관에게 순직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이 전 장관은 그 이전은 물론 그 이후로도 대통령실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해병 1사단장을 구명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그렇게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통화 내용의 진위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공수처 수사에 중요한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녹취가 의도적으로 조작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구명 로비는 근거 없는 주장이며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어떠한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전아현 기자 cahyun@

'수출 새싹' 스마트팜 키운다… 법률컨설팅·수주 지원

❸ 정부, 글로벌시장 공략 강화

국내 스마트팜 기업인 엔씽이 UAE 아부다비 시내에 설치한 컨테이너 수직농장. 사진제공 농림축산식품부

韓 수출·수주실적도 전년比 2배↑
농식품부, 6개 법무법인과 협약
법인별 해당국가 지정해 집중상담

스마트팜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마트팜 수출과 수주 실적은 2023년 2억9600만 달러(약 4000억 원)로 전년(1억3700만 달러) 대비 2.2배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 626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5.2% 급증했다.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스마트농업 세계시장은 2028년 254억 달러로 매년 9.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팜 수출 및 수주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컨설팅과 수주 지원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타 부처와 협업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적극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우선 최근 스마트팜 수출과 수주가 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해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및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컨설팅 지원에 나섰다.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는 스마트팜 기업들은 해당 법률컨설팅 지원을 통해 △현지 법인설립 △해외 분쟁 해결 △해외 인허가·특허 △계약서 검토 △회계·세무 등 수출·수주 계약에 필요한 전 분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별로 주요 대상 국가를 지정해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기업들에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화우는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쿠웨이트, 스타트업 및 기술벤처 특화 법무법인인 디라이트는 호주와 베트남, 광장(호찌민사무소)은 베트남, 마투크 바시우니(Matouk bassiouny LTD)는 사우디와 UAE, AYMAX는 아제르바이잔, AKLLP는 카자흐스탄으로 지정했다. 이외 국가도 법무법인과 협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원하는 법무법인을 정해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홈페이지(www.kasfi.or.kr)에 게재된 문의처로 신청양식을 메일로 보내면 된다.

이상만 농식품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기업들이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법률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원 방안을 찾게 됐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부터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을 신규 추진한다. 스마트팜에는 다양한 기술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적용돼야 하므로 한 기업의 힘만으로는 규모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 수출기업과 여러 차례 가진 간담회에서 "스마트팜 분야에서도 프로젝트 수주 제안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성공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해외 수주 프로젝트 계획을 보유한 스마트팜 수출기업 컨소시엄을 선발, 1년간 해당 프로젝트를 전담·밀착 지원한다.

올해 첫 모집임에도 불구하고 총 16개 컨소시엄, 38개 기업이 지원해 스마트팜 수출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서류와 발표 심사를 거쳐 4개 컨소시엄, 9개 기업이 최종 선발됐다. 포미트-농심 컨소시엄은 사우디에 수직농장 수주에 나서며 만나CEA-도화엔지니어링은 사우디에 아쿠아포닉스 수주를 추진한다. 이수화학-엘앤피(L&P)는 UAE에 수직농장, 와이비즈-인프로-에네이 컨소시엄은 아제르바이잔에 노지 솔류션 수주에 나선다.

컨소시엄 선발해 1년간 밀착 지원
사우디와 483만弗 계약달성 성과
132개 韓기업 소개서로 홍보 박차

선발된 컨소시엄은 현지 기반 구축, 컨설팅, 전담직원 매칭 등 프로젝트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동, CIS 스마트팜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수주 지원은 벌써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만나CEA와 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올해 5월 사우디에 483만 달러 규모 스마트팜 수주계약을 체결했다. 아쿠아포닉스 기술을 활용해 6000㎡ 스마트팜을 리야드 지역에 구축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스마트팜 설비(관수시스템, 센서 등 HS코드 169개)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단기수출보험은 우리 기업이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스마트팜 수출 기업은 보험료 20% 할인, 가입한도 최대 2배, 보상한도 최대 1.5배 등의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는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지정, 중동지역 셔틀경제협력단 파견 등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코트라, 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한국 스마트팜 기업의 주요 수출제품과 기술 소개 정보를 총망라한 수출용 케이(K)-스마트팜 디렉토리북도 발간했다. 영문으로 제작된 이번 K-스마트팜 디렉토리북에서는 온실, 수직농장, 노지 등 다양한 분야의 총 132개 한국 스마트팜 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각 기업의 기술이나 제품별로 특징·강점, 수출 경과, 희망 진출지역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해 해외 구매업체(바이어)가 원하는 기술과 제품을 확인하고 직접 우리 기업에 연락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농식품부는 K-스마트팜 디렉토리북을 한국 스마트팜에 관심이 높은 지역의 코트라(KOTRA) 26개 해외 무역관에 배포해 해외 구매업체(바이어) 상담회, 주요 박람회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디렉토리북은 인쇄 책자뿐만 아니라 전자책으로도 제작되어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누리집(www.kasfi.or.kr)에 게재된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디렉토리북 발간·배포를 통해 해외 구매업체들에 한국 스마트팜 기업들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내 예정된 K-스마트팜 로드쇼 등과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제작지원
2024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물[水] 오르다

산업용 수처리 전문기업에서 **종합환경기업**으로
대한민국 대표 환경기업에서 **글로벌 환경기업**으로

초순수 생산
토털 수처리 솔루션
폐수재이용/해수담수화
연구 및 기술개발

한성크린텍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이투데이 빌딩 6층, 17층 02-6371-3900 hasco@hscleantech.com

관계사 대양엔바이오㈜ ES Water Solution E CLEAN WATER

“CXL 개화시점 2026년…곧 스위치 칩 개발 착수”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

한진기 이음 대표

CPU·GPU·메모리 각각의 칩 CXL규격으로 변환해주는 역할
AI, 인터커넥트 기술 가장 중요 기업간 협력해야 생태계 확장

한진기 이음 대표가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시장의 개화 시점과 이에 맞춘 스위치 제품 개발 및 출시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대규모 양산이 일어나는 시점은 2026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음은 그 시기에 맞춰 스위치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

한진기 이음(EEUM) 대표는 4일 서울 강남구 파두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CXL 시장 개화 시점과 제품 개발 진행 상황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현재 CXL 스위치 칩을 만들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는 거의 다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파두의 시스템온칩(SoC) 팀과 실제로 칩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막 (CXL 스위치) 샘플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대규모 양산이 일어나는 시점은 2026년으로 보고 있다”며 “이 시점에 맞춰 첫 번째 칩을 출시해 승부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음은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기업 파두(FADU)의 자회사다. 파두가 지분 69%를 보유하고 있다. 이음은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CXL의 스위치 칩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CXL은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메모리 및 스토리지 등 다양한 장치를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차세대 인터페이스다. 기존에는 각각의 칩에 별도 인터페이스가 존재해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다. CXL은 PCIe(PCI 익스프레스)를 기반으로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통합해 연결이 매끄럽다. 메모리의 대역폭과 용량도 크게 늘릴 수 있다. 이음이 주력하는 스위치는 각각의 칩들을 CXL 규격으로 변환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한 대표는 “현재 슈퍼마이크로 등 글로벌 서버 업계의 CXL 니즈가 엄청 크다. CXL 시스템이 구축되면 데이터 센터에서는 유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이미 논의를 하는 회사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CXL 4.0 버전에 맞춰 스위치 칩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 칩은) 반도체 중에서도 데이터 밴드위스(대역폭)가 굉장히 높은 칩이다. 최신 3나노미터(㎚, 1㎚=10억분의 1m)나 4㎚ 공정으로 만들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소형언어모델(SLM) 시장에 대한 장밋빛 가능성도 점쳤다. 현재 인공지능(AI) 기술은 오픈AI의 챗GPT 등 대형언어모델(LLM)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보다 작은 규모에 대한 시장의 니즈도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챗GPT 3 등 이미 사이즈가 큰 LLM 모델들은 파라미터가 400기가바이트(GB)를 넘었다. 말도 안 될 정도로 큰 스펙”이라며 “10GB 이하 크기의 온디바이스AI와 LLM 사이에 50~80GB 정도의 SLM도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CXL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국내 기업들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AI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터커넥트 기술”이라며 “메모리 기업, 스토리지 기업, 스위치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등이 모두 뭉쳐야만 진정한 AI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CXL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시장 조사 업체 욜에 따르면 CXL 시장 규모는 2022년 1700만 달러(약 220억 원)에서 2026년 21억 달러(약 2조8912억 원), 2028년에는 158억 달러(약 21조8002억 원)로 커질 전망이다.

글·사진 박민웅 기자 pmw7001@

한국 투자자 테슬라 주식 사랑에 머스크 “한국인은 똑똑한 사람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태극기와 테슬라 로고를 합성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사진〉 한국인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했다는 글의 답변이었다.

8일(현지시간) 테슬라 관련 소식을 전하는 ‘테슬라코노믹스’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머스크는 한국인을 향해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해당 계정에 ‘테슬라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이라는 글의 답글이었다. 또 머스크는 태극기에 테슬라 로고를 합성한 이미지도 추가 게재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4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테슬라 주식 보관 금액은 약 146억7000만 달러(20조3000억 원)로 집계, 엔디비아에 내줬던 해외주식 보관금액 1위를 다시 탈환했다.

기정아 기자 jjonga1006@

사진출처 테슬라코노믹스 X

‘폭우 피해’ 경북 안동·충북 영동 BGF리테일, 긴급구호물품 지원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폭우로 피해를 본 경북 안동 지역에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안동은 7일 밤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주택과 공공시설물 등이 파괴되고, 마을 주민이 한때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BGF리테일은 지원 요청을 받자마자 행정안전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구축하고 있는 재난 긴급 구호활동인 ‘BGF브릿지’를 가동해 피해 현장으로 구호물품을 긴급 배송했다. CU가 전달한 구호 물품은 생수와 라면, 초코바, 빵류, 커피 등 1000명분 상당의 식음료로 이재민과 구호 요원에게 공급된다. BGF리테일은 충북 영동군에도 동일한 구호 물품 300인분을 지원한다.

BGF리테일은 2015년 행정안전부 등과 ‘재난 예방 및 구호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30여 개 물류센터와 전국 CU의 1만8000개 점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BGF브릿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

오리온 “제주지역 상생발전” 7억 상당 기금·제품 지원

오리온그룹은 제주지역 상생과 발전을 위해 제주도 내 기관과 단체에 7억 원 상당의 기금과 제품을 전달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리온그룹은 8일 사회공헌 기금 1억 3000만 원과 ‘닥터유 제주용암수’, ‘초코파이정(情)’ 등 1억 원 상당의 제품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또한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의 산학협력 연계 교육과정인 ‘캡스톤 디자인’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했다.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에는 멸종위기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연구·보호하기 위한 환경보호 기금도 지원했다.

오리온그룹은 제주관광협회와 제주관광 진흥과 용암해수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용암해수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공항과 항만, 주요 관광지 등에 1억 원 상당의 제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kjy42@

왼쪽부터 김부곤 오리온재단 이사, 현종훈 오리온제주용암수 대표이사, 박은희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고승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사진제공 오리온

하나금융, 파리올림픽 국가대표팀에 격려금 전달

하나금융그룹은 파리올림픽 국가대표팀에 격려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결단식’에서 이은형 하나금융 부회장이 격려금을 전달하며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했다.

이번 격려금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개최되는 2024 파리올림픽 출전을 위해 막바지 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이 부회장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고의 성과를 거둬 한국 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이기흥(왼쪽부터) 대한체육회장,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정강선 올림픽 선수단장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금융그룹

강호동 농협 회장, ICAO 회장 취임

농협중앙회는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 집행위원회에서 강호동〈사진〉 농협중앙회장이 ICAO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34개국 41개 농업협동조합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ICAO는 이날 강호동 회장과 함께 일본 JA전중의 후쿠조노 아키히로 상무이사를 아시아 지역 부회장으로 선임하며 집행위원회의 빈자리를 채웠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신한카드, 디지털정부 유공 표창

신한카드(사장 문동권·사진)는 2024년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중심의 금융 편의성 향상은 물론,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한 점을 높이 인정받아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 부문에서 수상했다.

정상원 기자 jsw@

인사

◆기술보증기금 ◇본부장 전보 △서울서부지역본부 정규열 △서울동부지역본부 송재연 △인천지역본부 이기원 △경기지역본부 조영길 △충청지역본부 장희철 △부울경지역본부 안일성 △대구경북지역본부 김세현 ◇부서장 승진 △경영기획부 이종혁 △자산운용실 최영선 △ICT운영부 김재윤 △비서실 곽용주 △리스크준법실 김태주 ◇부서장 전보 △글로벌협력센터 이관우 △성과평가실 김형태 △인사부 이종석 △정보보안혁신센터 박재환 △벤처혁신금융부 이대일 △녹색콘텐츠금융부 김대원 △감사실 한창규 ◇지점장 승진 △녹산 이경배 △포항 박성인 △제주 이권재 ◇지점장 전보 △중앙기술평가원 김현 △벤처투자금융센터 정대영 △강남 최해성 △종로 권동혁 △가산 김흥배 △의정부 오충열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권기철 △송파 박경규 △서초 박중기 △성수 이종열 △판교 장제중 △원주 최선종 △춘천 강주홍 △강릉 권선규 △인천 최우영 △부평 정철호 △인천중앙 이상준 △김포 권기현 △인천기술혁신센터 송한길 △평택 이세용 △화성 장재혁 △용인 이범섭 △오산 이원기 △화성동 장경진 △경기기술혁신센터 윤순영 △경기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 김무영 △대전 박경순 △청주 조철래 △충주 이정우 △진천 남재현 △세종 윤형덕 △대전기술혁신센터 양정호 △대전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 한상의 △동래 김윤택 △울산 오주웅 △진주 김종형 △마산 김창원 △부산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 하용운 △대구 정기용 △대구서 강용도 △대구북 임상순 △구미 이동규 △경산 안상근 △대구기술혁신센터 이재상 △익산 이안근 △군산 정영도 △목포 이명길 △광주기술혁신센터 김건 △서울서부재기지원센터 김양기 △서울동부재기지원센터 김태형 △인천재기지원센터 나용중 △경남울산재기지원센터 배수환 ◇수석팀장 승진 △경영기획부 송정근 △홍보실 강일호 △기술평가부 이재식 △서울서부지역본부 정승엽 △인천지역본부 정영학 △충청지역본부 조희제 △구로 양동섭 △안산 최성모 △사상 박노철 △동래 이석기 △대구서 정병대

◆한국금융연수원 ◇1급(부서장) 승진 △감사실장 하정목 ◇2급(부부장) 승진 △경영지원부 부부장 최승혁 △경영지원부 인력지원팀장 허정호 △종합기획부 교육개발팀장 조문성 ◇팀장 신규 보임 △연수운영부 과정개발팀장 박정환 ◇팀장 전보 △연수운영부 연수기획팀장 김기범

◆BNK금융그룹 〈BNK금융지주〉 ◇3급 승진 △경영지원부 전인표 △미래혁신부 김태우 △브랜드전략부 정타 △전략기획부 김성용 〈부산은행〉 ◇부실점장 승진 △덕계지점 오성원 △수원금융센터 최호영 △신평동금융센터 이용규 △양산금융센터 배세룡 △울산금융센터 이학수 △자금부 정종덕 △준법감시부 남정호 △하단동금융센터 유진형 ◇부실점장 전보 △강서산단지점 장미남 △광안동지점 김선영 △괴정동지점 백종일 △덕포동지점 김승화 △부전역지점 장재우 △사상중앙지점 문효성 △수영금융센터 신재현 △영도금융센터 김광수 △용호동지점 반행규 ◇3급 승진 △W스퀘어지점 손지혜 △기업경영지원부 안여진 △난징지점 정회권 △녹산중앙지점 김진애 △디지털금융개발부 김승우 △사상중앙지점 한승희 △신용평가부 이창훈 △양산금융센터 이태주 △여신고객부 김효진 △영업지원부 홍준성 △재무기획부 신용진 △전략기획부 김민욱 △총무부 박종률 △투자금융지원부 지성훈 △플랫폼사업부 고민우 〈경남은행〉 ◇부실점장 승진 △시흥배곧지점 김송배 ◇부실점장 전보 △녹산지점 강만근 ◇3급 승진 △내부통제분석팀 이진우 △내외동지점 김동완 △서울영업부 김원 △석동지점 손준식 △여신감리부 강경태 △여신심사부 박용성 △용지로지점 최영수 △자금운용부 강진철 △재무기획부 박경진 △정보개발부 손승욱 △준법감시부 최연회 △지내동지점 예석준 △진주영업부 이성주 〈BNK캐피탈〉 ◇부실점장 승진 △부산오토지점 김상인 〈BNK시스템〉 ◇부실점장 승진 △SM사업1부 송운

부음

▲곽수자 씨 별세, 구본영 씨 배우자상, 구희진·희정 씨 모친상, 민승배(BGF리테일 대표이사)·이선호(JATCO KOREA 시스템&제어개발실장) 씨 장모상 = 10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2일 오전 10시, 02-3410-3151

▲이영명 씨 별세, 이재훈·수희 씨 부친상, 김홍주(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시장부 부서장) 씨 장인상, 김현경 씨 시부상 = 10일, 부산광역시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2분향실, 발인 12일 오전 5시 30분, 051-610-9009

논현광장

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얼마 전 부산에서 강연을 하며 청중에게 서울 지하철을 타봤는지, 그 경험이 어땠는지 물어봤다.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서울에 사는 친척이 지하철이 편리하다고 해서 저는 처음 탔더니 복잡하더라고요. 갈아타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서울에서 지하철을 자주 타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 말이다.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다는 서울 지하철 타는 게 어렵다고?

1년에 한국을 2~3번 오는 외국인 친구는 지하철이 편리하다며 한국에 올 때마다 지하철을 애용한다. 그런데 얼마 전 처음으로 불편한 경험을 했다. 그 전에 한 번도 타지 않았던 도시철도 노선으로 갈아타봤는데 생각보다 길 찾기가 어렵더란다.

이 두 사람이 불편을 느낀 공통적인 이유는 표지판을 포함한 안내 체계에 있다. 자기가 봤던 환승 표지판은 회색이었는데 다른 노선으로 갔더니 표지판 색깔이 바뀌어서 얼른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가는 곳' '갈아타는 곳' 같은 한글은 이제 글자 모양으로도 알아볼 수 있는데, 표지판 모양이 바뀌니까 얼른 알아보기 어렵더라고. 처음 오는 외국인들은 글꼴이랑 표지판 색깔이 달라지기만 해도 혼돈스러운데 외국어 글씨는 작으니까 더 헷갈리고."

표지판은 장소 정보를 알려주는 중요한 요소다. 표지판이 명료하지 않으면 방문자들이 헤맬 수 있고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서비스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린다. 그뿐이 아니다. 응대하는 사람들의 응대 피로도도 커진다. 서울 지하철역 중 복잡한 환승역을 보면 정식 표지판이 아니라 역에서 직접 출력하여 붙인 듯한 소위 '사제' 안내판들이 눈에 자주 띈다. 사제 안내판이 많다는 건 두 가지 스트레스의 증거다. 이런 스트레스는 얼른 측정이 되지 않지만 축적되어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안내 스트레스'를 명료한 안내판으로 상쇄하는 사례는 어디 있을까? 김포공항역이나 인천공항역이 좋은 사례다. 우선 표지판과 방향 안내 글꼴이 압도적으로 크다. '나가는 곳' '갈아타는 곳'과 같은 안내문 글씨도 다른 역에 비해 3배 이상 크다. 생각해 보면 공항 안 표지판을 눈에 잘 띄게 만들어 놓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항 안 표지판은 수십 미터 전방에서도 볼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놓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공항에 자주 가지 않기 때문에 정보 안내의 시인성이 그 어디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상상을 해보자. 모든 안내문들이 공항과 같다면 처음 온 관광객도, 휠체어를 타서 시야가 낮아도, 시력이 좋지 않아 작은 글씨가 안 보이더라도 모두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셈이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는 문장은 정보 접근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한국도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접근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접근권은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접근권으로 나눌 수 있다. 지체장애는 물론이고 발달장애인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정보에 접근하려면 우선 쉬운 언어로 정보를 만들어야 한다(표지판에 한자어보다는 쉬운 한글을 써야 하는 이유다). 정보가 제시되는 곳의 디자인도 중요하다. 특히 교통과 같이 서로 연결되는 체계에서는 안내판 디자인이나 문구 통일도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디자인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멋지고 도드라지는 디자인 요소보다 쉬운 정보를 얼른 알아차릴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여 정보를 알아차리는 과정에 스트레스가 없도록 "모두가 접근가능한 정보"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하워드 가드너 명언

"불행한 사람은 갖지 못하는 것을 사모하고,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을 사랑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다중지능이론을 제시한 그는 '다중지능: 인간 지능의 새로운 이해' '비범성의 발견' '열정과 기질' 등을 지은 교육이론의 대가다. 세계 여러 나라에 그의 이론에 근거를 둔 연구소와 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오늘은 그가 출생한 날. 1943~.

☆ 고사성어 / 겸청즉명(兼聽則明)

여러 사람의 의견을 두루 들으면 시비를 잘 구별할 수 있고, 한쪽 말만 곧이듣게 되면 사리에 밝지 못하게 된다는 말. 신당서(新唐書)에 나온다. 당(唐) 태종(太宗)이 형의 참모이자, 정적이었던 위징(魏徵)을 끌어안아 자신의 핵심참모로 썼다. 태종이 위징에게 명군(明君)과 혼군(昏君)의 차이를 묻자 그는 "겸청즉명(兼聽則明) 편신즉암(偏信則暗)"이라고 간결하게 답했다. 널리 견해를 구하면 명군이 되고, 치우쳐 들으면 어리석은 군주가 된다는 말이다. 무릇 지도자란 자만하지 말고, 항상 여러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 시사상식 / 액면분할(額面分割)

주식의 액면가를 일정한 분할비율로 나눠 주식 수를 증가시키는 일이다. 액면가 5000원짜리 1주를 둘로 나누어 2500원짜리 2주로 만드는 식이다. 이론적으로는 액면분할로 캐피털 게인(자본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이 시장에서 1만 5000원에 거래되는 경우, 액면가 2500원의 주식 2주로 액면분할한다면 그 주식의 시장가격도 7500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주주의 자본이득은 발생하지 않는다. 액면분할은 일반적으로 주식의 시장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어 거래가 부진하거나 신주 발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 이루어진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7 영국 총선 노동당 압승과 산적한 과제

親성장·기업 표방…경제회복 관건
최대시장 EU와 관계개선 나설 듯

'보수당 역사상 최악의 패배.' 이달 4일 치러진 영국의 조기 총선에서 보수당은 전체 의석 650석 가운데 121석을 얻는 데 그쳤다. 1834년 현대 정당의 기틀을 갖춘 보수당 190년의 역사상 최악의 패배다. 강경한 이민정책을 요구하는 영국개혁당이 보수 진영의 표를 갉아 먹어 보수당이 참패했다. 제1야당 노동당은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으나, 지속되는 저성장과 750만 명이 넘는 병원 치료 대기자 수 줄이기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대표가 5일(현지시간) 런던 테이트모던 미술관에서 총선 승리 연설을 하고 있다. 스타머 대표는 이날 영국 총리에 취임했다. 런던/로이터연합뉴스

노동당의 승리가 일찍부터 예상된 가운데 이번 영국 총선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몇 개 의석을 차지할지였다. 소선거구제로 한 명만 선출되는 선거에서 노동당은 411석을 얻어 압승했다. 34%의 지지를 얻었을 뿐인데 보수 표가 갈라지면서 어부지리를 차지했다.

극우 영국개혁당에 보수표 분열

영국개혁당의 나이젤 패라지(Nigel Farage)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찬성 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극우 포퓰리스트다. 그는 원래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지난달 초 이를 번복하고 출마했다. 또 609개 선거구에서 개혁당 후보자가 대거 출마해 보수당 표를 잠식했다. 지역구 기반도 별로 없던 개혁당은 그의 명성에 의거해 이번 선거에서 무려 14% 지지를 얻었고 5석을 확보했다. 패라지도 8수 만에 하원의원이 됐다.

그는 보수당이 브렉시트를 배신했기에, 그리고 미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트럼프를 지지하려 불출마를 번복했다고 밝혔다. 패라지는 EU와 아무런 합의없는 강경 브렉시트를 요구했으나 집권 보수당은 EU와 가장 낮은 단계의 탈퇴조약에 합의했다. 5월 중에 패러지는 트럼프 선거 진영으로부터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영국에서 극우 민족주의 바람을 일으켜 트럼프를 도와주고자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영국개혁당은 의료와 요양 등 필수 분야의 이민만 받고 나머지는 피란민 등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이민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선진국이 후진국을 도와주는 공적개발원조(ODA)에 현재 국민총소득의 0.5% 정도를 쓰는데 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저성장이 지속되는 바람에 영국도 살기 힘든데 왜 후진국 지원에 돈을 이렇게 많이 지출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의 이런 공약은 보수당의 실정에 실망한 전통적인 보수당 지지자들을 끌어들였다. 득의양양한 패라지는 하원에서 진정한 야당이 되겠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대패한 보수당의 경우, 2~3달 안에 새 당수가 선출될 예정이다. 신임 보수당 총재는 아무래도 '집토끼'를 잡기 위해 이민정책 등에서 영국개혁당에 버금가는 더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강경한 요구는 정권 교체에 성공한 노동당의 정책 재량권을 제한할 수 있다.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신임 총리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2015년 52세에 하원의원이 돼 2020년 노동당 당수가 됐다. 전임자 제레미 코빈이 더 왼쪽으로 변모시킨 노동당을 중도 쪽으로 다시 방향전환했다. 또 14년 보수당의 실정을 집중 공략하면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고, 보수당의 표가 갈라져 압승할 수 있었다.

브렉시트 이후 저성장 불만 쌓여

그는 친성장, 친기업적인 선거공약을 제시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영국은 선진7개국(G7) 가운데 계속해서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2년부터 독일이 이 불명예 타이틀을 차지했으나 영국의 저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0.5% 정도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 영국 교역의 절반 정도가 가는 EU로부터 탈퇴한 후 대(對)EU 무역이 줄어든 만큼 이를 보완할 시장개척이 아직 요원하다.

영국의 제2 무역시장인 미국과의 교역은 대EU 교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미국과 영국의 FTA는 말만 무성했을 뿐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EU 탈퇴 이전에 영국 기업들은 EU 회원국과 교역 시 아무런 장벽도 없이 거래할 수 있었다. 브렉시트 후 통관절차가 도입되고 인력의 자유이동도 금지돼 물가와 인건비도 상승했다. 반면에 임금은 가파른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해 시민들의 불만이 누적됐다.

스타머 총리는 브렉시트가 너무 분열적인 이슈여서 아주 점진적으로 유럽연합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만 밝혔다. 일단 안보 분야의 협력은 EU와 정책 차이가 없어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올 초 EU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호라이즌(Horizon)'에 예산을 납부하고 참여하는 것처럼 실익이 분명한 EU의 개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와 점차 관계를 개선하면 경제 성장률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붕괴된 의료체계 개선 시급해

무료 건강보험(NHS) 치료 대기자 수 줄이기는 매우 어렵다. 2024년 2월 말 현재 긴급한 수술 등을 제외하고 750만여 명이 치료를 대기 중이다. 시민들은 거주지 1차 의료기관의 의사를 만나 진료를 받는데 평균 10일이 걸린다. 여기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여겨 2차, 3차 기관으로 보낸 환자들은 평균 13주가 넘게 기다려야 한다. 2019년 초에는 대기자 수가 420만 명에 불과했는데 5년 만에 330만 명이 더 기다린다.

영국 공공 서비스 지출의 38%가 NHS에 투자되지만 의료 인력은 9%나 부족하다. NHS 지출이 폭증하는 의료 수요에 크게 밑돌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수당은 총선에서 이겨보려고 건보료를 계속 인하했다. 근로자 과세 표준액의 12%였던 건보료를 1월부터 10%로, 4월부터는 추가로 2%포인트 인하했다. 설문조사를 보면 시민들은 건보료를 더 내더라도 NHS 대기자 수 줄이기를 원한다.

노동당은 증세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NHS 투자를 늘리려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아울러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면 실질 임금이 오를 수 있어 건보료 재정도 개선될 수 있다.

스타머 신임 총리는 5일 총리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 앞에서 "우리는 영국을 재건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극우 세력이 대두하는 가운데 영국은 이번 총선에서 진보 정당이 승리했다. 영국의 이런 변화가 유럽 대륙에도 확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구대 교수(국제정치학)
'하룻밤에 읽는 독일사' 저자
팟캐스트 '안쌤의 유로톡' 제작·진행자

'완벽한 엄마'라는 환상

함인희의 우문현답

이화여대 교수
사회학

'엄마는 미친 짓이다'는 미국의 저널리스트 주디스 워너의 작품으로, 원제 '완벽한 광기(perfect madness)'의 한국어 번역본 제목이다. 다소 과격하게 느껴지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적나라한 일상을 생생히 담아낸 덕분에 독자들로부터 열렬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책의 앞부분에는 3년간 프랑스 특파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필자가 가까이서 지켜본 프랑스 엄마와 미국 엄마에 대한 흥미로운 비교가 등장한다. 돌이켜보니 프랑스 엄마들은 유유자적 여유롭게 엄마 역할을 즐기고 있다는 인상이 짙었는데, 그 이유를 곰곰 생각해보니 두 가지가 집히더라고 했다.

첫째로는 유럽식 복지제도가 주는 안정감이 지목되었다. 출산부터 양육을 거쳐 교육에 이르는 전 과정이 엄마 혹은 가족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음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것이 필자의 질투 어린 진단이었다. 워킹맘 친화적인 육아휴직 제도는 물론이요, 시장 메커니즘을 배격한 공공성에 기반한 양육 및 교육 시스템은, 엄마 역할에 부과되는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분명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유자적 엄마역할 즐기는 佛여성
한국에선 출산·양육·교육에 짓눌려
육아·자기삶 병행하는 환경 갖춰야

두 번째 진단이 보다 흥미로웠는데, 프랑스 엄마들은 너나없이 굳이 프로페셔널 맘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아마추어 맘에 만족하더라는 것이다. 아이 고유의 타고난 잠재력은 교육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발현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 결과 대다수 엄마들이 '완벽한 엄마'가 되리라는 환상에 발목 잡히지 않은 채, 오히려 엄마 역할을 부담 없이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프랑스 엄마들이 보여준 아마추어적 모성은 '집중 모성(intensive mothering)' 혹은 '과잉 모성'이 대세인 미국에 돌아와서 보니 그 미덕이 더욱 두드러지게 다가왔다고 한다. 특히 고도로 발달된 시장 메커니즘이 미성숙한 복지 시스템을 압도하는 미국에서는, '완벽한 엄마'가 되리라는 환상을 부여잡고 기꺼이 헬리콥터맘·드론맘·타이거맘을 불사하는 현실 앞에서 좌절감에 빠졌다고 했다.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은 열망에 휘둘린 나머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번아웃에 빠지는 자신을 보면서는 더더욱 프랑스 엄마들의 아마추어 맘 정신이 그리웠다고 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합계출생률 1.0을 목표로 출산 부양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요즘, 아마추어 맘에 왠지 자꾸만 눈길이 간다. 최근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단연 초저출산이 화두에 올랐는데, 그 자리에서 확인한 건 여성들 사이에 엄마 역할에 부여하는 의미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는 사실이었다. 1960~1970년대 출생한 여성들만 해도 "돌이켜보면 그래도 자식들 키울 때가 행복했고 나름 보람 있는 나날"이었다는 데 동의했다. 한데 1980년대생으로 오자 "솔직히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이 내 인생을 희생해도 좋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실제로 모성의 역사를 추적해보면, 매우 드라마틱한 변화가 전개되어 왔고 문화권별로 현란할 만큼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연 엄마 역할이 무엇인지는 끊임없이 움직여왔는데, '완벽한 엄마'라는 일종의 환상이 출산 양육 교육 과정에 부담과 불안 나아가 공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를 일이다. 지금은 '왜 아이를 안 낳으려 할까?'를 묻기보다 '왜 아이를 낳으려 할까?'를 물을 때라 했던 누군가의 주장이 자꾸 귓가에 울려온다.

법정에 서기 전에 알았더라면

노트북 너머

박 꽃
사회경제부 기자

사회적 관심을 받는 유명인의 형사사건 선고 결과를 취재하려는 기자는 대부분 법정 앞에 찾아가 미리 대기해야 한다. 세간의 관심이 높을수록 취재 경쟁도 뜨겁기 때문에 자칫 방청석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리를 선점하는 데 성공한 날이면, 생각지 못한 풍경을 덤으로 관찰하는 기회도 생긴다. 주요 재판 앞뒤로 진행되는 또 다른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유죄를 선고받거나 법정 구속되는 모습을 심심찮게 목격하는 까닭이다. 마치 흥미진진한 막장 드라마를 시청하듯, 죄를 짓고 찾아온 이들의 세세한 당시 범행 상황과 그에 따른 상세한 혐의까지 알게 되는 건 물론이다.

유죄를 선고받는 피고인은 대부분 재판장 앞에서 공손한 태도를 보인다. 심지어는 자신의 죄에 대해 설명 들을 때 크게 부끄러워하기도 한다.

경찰관에게 불씨가 살아 있는 담배꽁초를 던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다는 한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은 구속 결정이 나는 동안 두 손을 배 앞에 모으고 고개를 떨궜다. 자신을 찾아온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부정하게 처방한 것도 모자라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환자를 조종해 불법 성관계 영상물까지 촬영했다는 늙수그레한 남자 의사는 판사의 입을 통해 자신의 죄가 인정될 때마다 얼굴이 벌겋게 붉어진 모습을 숨기지 못했다.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일삼던 이들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런 모습을 지켜볼 때 종종 생각한다. 자신을 구속할지, 집행유예로 인신 구속만큼은 면해줄지, 벌금형 정도로 처분해줄지 그 '목숨 줄'을 쥐고 있는 판사 앞에서는 아무리 한심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이일지라도 참으로 점잖아진다는 것을. 그들 역시 수치심까지 느낄 줄 아는 평범한 감각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것을.

물론 큰 처벌을 면하기 위해 그 순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전략'일 수도 있지만, 그런 전략 역시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눈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건 마찬가지다. 일상 생활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기분과 눈치를 그만큼만 살폈다면, 과연 그 자리까지 올 일이 있었을까 싶어서다. 법정에 서기 전에 그 점을 헤아려봤더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다. pgot@

사설

"무기한 총파업" 선언한 전삼노, 공멸을 원하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어제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8일부터 사흘간 1차 파업을 한 뒤 15일부터 5일간 2차 파업을 하겠다는 애초 계획을 돌연 바꿨다. 전삼노는 파업 목적을 '생산 차질'로 규정한다.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회사에 피해를 끼쳐 우리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폭주 연발이다.

어느 기업이든 큰 손실이 발생하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타격을 주게 마련이다. 주주, 지역사회, 하청기업 등에 폭넓게 파문이 번지는 것이다. 근로자도 예외가 아니다. 성과급 등에 직격탄을 맞는다. 전삼노는 그런데도 그 길로 달려간다. 공멸의 길이다. 조합원 지지를 확신하기 때문일 것이다.

전삼노 조합원은 현재 3만1000여 명이다. 1차 파업 첫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3000명이 참석했다. 삼성전자의 전체 직원은 약 12만5000명이다. 상대적으로 소수에 그치고 평균 연봉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이들이 '올해 임금 인상률 5.1%'에 만족할 수 없다면서 모든 이해관계자 목에 비수를 들이대는 형세다. 삼성전자의 위상으로 미루어 국가와 국민에게도 비수를 들이댄 것이나 진배없다. 근면과 자조, 헌신으로 일어선 대한민국이 어느새 이런 생떼가 통하는 나라가 됐다.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도 이런 기업이 됐다. 이런 변질, 이런 퇴행이 따로 없다.

삼성전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생산 라인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파업 장기화는 다른 얘기다. 전삼노 조합원 대부분이 DS(반도체) 부문 근로자다. DS부문 직원 약 7만 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 중이다. 반도체 공장은 순간 정전에도 수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다. 한 번 멈추면 정상화까지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이 투입된다. 앞서 2018년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에 28분간 정전이 발생했을 때 피해 금액은 500억 원 수준에 달했다. 앞으로 또 어떤 파국적 드라마가 써질지 알 길이 없다. 답답하고 참담하다.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고객사 이탈 등 잠재 리스크도 심각하다. 지난해까지 혹독한 시기를 겪은 반도체는 모처럼 인공지능(AI) 열풍을 맞고 있다. 하지만 국내 대표기업이 '생산 차질' 어깃장에 발목이 잡히면 게도 구럭도 다 잃게 마련이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세계적 경쟁 국면에 노조발 생산 차질 우려가 있는 기업과 흔쾌히 거래할 고객사를 어디서 찾겠나.

전삼노 폭주는 수수께끼투성이다. 총파업 요구안인 임금 기본 인상률(3.5%)은 협의회 합의안(3.0%)과 큰 차이가 없다. 대화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런데도 폭주를 거듭한다. '무노동 무임금'을 외친 전삼노가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라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강자 TSMC는 그제 뉴욕 증시에서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를 찍었다. 삼성전자의 2배가 넘는다. 불과 몇 년 만에 벌어진 격차다. 이대로라면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전삼노는 진정 공멸을 원하는지 자문해야 한다.

특허, 톡!

시급한 미국내 특허소송 대비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특허침해소송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가장 흔한 소송은 특허관리회사(NPE: Non Practicing Entity)가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이었지만 최근에는 한국 기업들끼리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 및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침해소송과 최근에 제기된 코오롱의 효성첨단소재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이 그 예이다.

미국에서 소송이 증가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이 매우 크다는 점도 있지만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국내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사내 내부 자료는 모두 영업비밀임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에 반해 미국에서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라면 모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지 않다. 디스커버리 제도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국내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대표적인 두 가지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기업, 디스커버리 제도 유념해야

먼저 사내 연구개발문서, 이메일 등을 포함한 모든 전자문서에 특허의 유무효 및 특허 침해에 관련한 의견이 들어간 문서가 변호사나 변리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소송에서 소송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이 들어간 문서는 그 전체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출하더라도 전문가 의견에 대한 부분은 제거된 상태로 제출할 수 있다. 만약, 변호사나 변리사의 감정의견이 아닌 연구원이 특허가 무효라거나 특허 침해를 자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남긴 경우 이는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률 감정이 포함된 문서에는 'Privileged & Confidential' 또는 'Attorney-Client Communication'의 문구를 남기는 것이 좋고, 이메일의 경우 변호사나 변리사를 참조에 넣는 것이 좋다.

사내 전자문서 체계적 관리전략 갖추길

다음으로 소송 제기 후 문서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증거 조작 행위를 절대 하지 말하야 한다. 만약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증거 조작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법원을 기만한 것으로 취급되어 바로 패소 처리됨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부과될 수 있다. 2012년 코오롱이 듀폰과의 소송 진행 중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이메일 1만여 건을 삭제한 사실이 밝혀져 미국 법원은 코오롱에게 약 1조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내 수출기업이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하게 되면 한국 본사에서 생성된 자료도 제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평소 위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수출 기업이라면 당장 특허·법무팀을 구축하고 사내 전자문서의 체계적 관리전략을 수립하자. 이는 향후 소송 승패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 편집·인쇄인 김덕헌 | 주필 이승현 |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 홈페이지 www.etoday.co.kr |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 팩스 (02)784-1003 | 광고문의 (02)799-2668 |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AMSUNG

Galaxy Z Fold6 | Z Flip6

Galaxy AI is here

역대급 강력한 AI 폴더블 폰의 탄생

사전판매 24.07.12~24.07.18

자세한 정보는
삼성닷컴에서 확인하세요

samsung.com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일부 AI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플렉스 모드는 75°~115°의 각도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며, 해당 범위를 벗어날 경우 완전히 펼쳐지거나 접힐 수 있습니다.